CDP
DRIVING SUSTAINABLE ECONOMIES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저탄소경쟁력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5

Written on behalf 822 of investors with US$95 trillion in assets

CDP Report | 05 November 2015

Korean Partner to CDP and Report Writer

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Co-Writer

EY 한영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Report Sponsor

신한금융그룹
SHINHAN FINANCIAL GROUP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Korean Scoring Partner

EY한영 www.ey.com/kr

EY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국내 유일 회원법인으로서 약 1,700명의 전문가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Y CCaSS팀은 CSR/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 EHS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CS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국제개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자문 및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장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5

Writer: 김태한, 이종오, 김주원, 한정민, 김예은, 장혁수, 구형남
Design & Publication: 화소

Contents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 / CDP한국위원회	02
CEO Foreword – Paul Dickinson, Executive Chairman / CDP	03
Investor Commentary – 한동우, 대표이사 회장 / 신한금융그룹	04
발간축사 – 홍일표, 국회의원 / 국회CSR정책연구포럼	05
발간축사 – 이원욱, 국회의원 /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06
Partner Commentary – 서진석, 대표이사 / EY한영	07
2015 Korea Leaders	09
The Climate A List Korea 2015	10
2015 Leadership Criteria	12
저탄소 투자, 주류 투자가 되다	13
Global Overview	14
Korea Overview	18
섹터별 분석	24
주요통계	54
부록 Ⅰ. Investor signatories and members	59
부록 Ⅱ.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60
부록 Ⅲ. CDP 2015 그룹사별 참여현황	61
부록 Ⅳ.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업 현황	62
부록 Ⅴ.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63

2015 기업별 전체 응답내용 보기
www.cdp.net/en-US/Results/Pages/responses.aspx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15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EY한영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EY한영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EY한영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EY한영, CDP, 협력기관, 제휴 회원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으며, EY한영이 한국평가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 2015 CDP Worldwide. All rights reserved.

장지인
위원장, CDP한국위원회

세계의 이목이 올해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릴 프랑스 파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변화 체제가 이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입법지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기후변화 투자를 고려할 때 CDP의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총회를 앞두고 각각의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가 본격적인 저탄소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P는 기후변화, 물, 삼림자원 등 중대한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관여(engagement)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환경경영 수순을 인류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높여 왔습니다. CDP는 2000년부터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기업경영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 저탄소 경쟁 시대를 대비하고 촉진시켜 왔습니다 때문에 파리 총회 이후 CDP의 위상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CDP에 서명한 금융기관들의 활동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CO_2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기업관여를 하는 CDP Carbon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금융기관들이 늘고 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녹색투자의 규모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은 내년 1월 1일부터 석탄 사업 투자자금 회수에 나섭니다. 매출이나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으로 올리는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노르웨이 의회가 통과시킨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한 87억 달러를 회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는 올해 5월 5억6000만 달러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고, 대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은 'Aiming for A' 연합을 조직해 온실가스 다배출 주요 기업들이 CDP Climate Change 평가에서 'A List'에 편입되거나, 유지하도록 기업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CDP에서 'A List'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A 밴드를 부여받은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올해 CDP 평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114개 기업이 이 'A List'에 편입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입법지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 기준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지표로 하는 기후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기후변화 투자를 고려할 때 CDP의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지구적 위기를 앞두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도 이 도도한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동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CDP의 정보공개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전 지구적인 요구에 대한 침묵과도 같습니다.

파리 총회 이후에 가속화 될 저탄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높은 책임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저탄소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기대합니다. CDP한국위원회는 책임있는 기업이 만들어 가는 길을 지지하고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Paul Dickinson
Executive Chairman, CDP

> 의심의 여지없이,
> 세계 경제의 탈(脫)탄소화는
>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 매우 담대한 목표이며, …
> 기업의 리더들은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 도전의 크기와 그 중요성을
>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생산 활동과
> 성장에 대한 생각의 방식을
> 완전히 바꿀 경제적 변혁의
>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CDP는 15년 전,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35개의 금융기관(운용자산 4조 달러)과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CDP 서명 금융기관의 수는 822개 (운용자산: 95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5,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CDP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CDP는 이제 기후변화, 물, 삼림자원을 포함한 기업의 환경 정보에 관한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DP서명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CDP 서명기관은 CDP를 통해 얻어진 핵심자료들이, 응답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지속가능성 관련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CDP에 보고된 정보 및 본 보고서는 최근 기업들이 내부 탄소가격 채택, 저탄소 에너지 투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찰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CDP 서명기관은 기후변화, 자원 고갈로 인한 위험을 회피 및 저탄소 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을 위한 투자결정을 위해 CDP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흐름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에너지 기업인 BP, Shell, Statoil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선도적 역할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과세 및 규제를 막기 위한 로비에 주주들의 펀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자들의 직접 인게이지먼트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집약 에너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도적 금융기관들은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에 가입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COP21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공적인 파리협상은 전세계가 금세기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래 전략과 투자 계획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 경제의 탈(脫)탄소화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매우 담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이를 CDP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리더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크기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산 활동과 성장에 관한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경제적 변혁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기반하지 않는GDP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 과정 – 소비의 개념이 전통적 물리적 상품의 구매에서 전자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자원 및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이룩된 새로운 부와 기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의 개념이 특정한 장소를 기반한 개념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탄소집약적인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19세기 우리는 사람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전세계에 걸쳐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광통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유/무선 통신에 대한 투자는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 기반 경제 – 기회가 시간이나 지리에 제한 받지 않고,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경제 – 의 바탕이 되는 보단 진일보된 네트워크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변혁은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기후변화 이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직 CDP 데이터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만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우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그룹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대규모의 인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방지노력과 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新) 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를 앞두고 각국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고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비단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활동은 선택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 요구의 반영이자 기업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그룹 내 에너지 절약(신한은행 국내은행 최초 ISO 50001 획득), 환경 영향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의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장려하는 '그린플러스 적금'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국가적인 환경영향 감축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신한금융그룹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JSI World)에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에서 유일하게 통합 A+ 등급을 획득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2015 CDP Korea평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도 환경경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여 친환경문화를 선도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이라는 미션 아래 그룹 내 에너지 절약 (신한은행 국내은행 최초 ISO 50001 획득), 환경 영향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비단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활동은 선택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 요구의 반영이자 기업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일표
국회의원·대표의원, 국회CSR정책연구포럼

인류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상승 이하로 제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4도가 오르며, 그때의 재앙은 인류의 파멸 수준입니다. IPCC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 수준의 41%~72%로 떨어뜨려야만 2도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CDP 참여는 심각한 기후변화 시대, 저탄소 경제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CDP를 적극 응답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2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인류 공동의 미래를 놓고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 역사적 장소가 프랑스 파리이며, 세계의 눈이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발효될 신기후변화 체제가 이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이 기존 1997년 교토의정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신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의 34개 회원국과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10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감축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이 예상보다는 진일보한 감축 계획을 제출했고, 각자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이같은 행보는 협상의 윤곽과는 별도로 치열한 저탄소 경쟁 시대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장시간의 레이스 동안 보조를 맞추어야 할 때와 앞서 나가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합니다. 최소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선두 그룹에서 멀어지고, 박차고 나가야 할 때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도 단기, 중기, 장기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보조를 함께 하고 드라이브를 걸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마라톤 선수가 어느 순간 박치고 나갈 수 있으려면 든든한 체력의 비축이 필요하듯이, 기업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축적, 그리고 타기업의 모범사례의 연구와 적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탄소경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P는 2003년부터 전 세계 나라 기업들의 탄소경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기술과 모범사례를 공유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CDP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탄소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CDP 참여는 심각한 기후변화 시대, 저탄소 경제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CDP를 적극 응답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은 CDP 글로벌 본부, CDP한국위원회와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정보공개 촉진과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CDP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CDP 활동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책임연구위원,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올해는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됩니다. 2020년 이후 우리 지구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 체제가 들어선다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은 기후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으로도 대우받을 것입니다. 탄소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의 등장으로, 탄소를 둘러싼 문제는 국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파리협상은 그 재편을 예측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에 있어 가장 선두에 이름을 올리는 미국과 중국이 탄소 감축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에게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월 30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지만, 37% 중 11.3%에 해당하는 96만1000톤은 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독립적 분석기관인 Climate Action Tracker는 우리나라 감축안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이대로라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까지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평균온도를, 온실가스의 85%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산업혁명 전과 대비해서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은 안일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처와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진실성이 부족한 녹색성장에 이어 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의 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제시한 감축안을 살펴보면, 파리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저탄소 경쟁의 룰 속에서 전세계가 급속히 재편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장기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는 좀 더 선제적이고 담대해 져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 체제가 들어선다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은 기후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으로도 대우받을 것입니다. 탄소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의 등장으로, 탄소를 둘러싼 문제는 국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파리협상은 그 재편을 예측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CDP 참여 금융기관들을 필두로 한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파리 총회를 앞두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투자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자 실질적인 행동 프로그램인 CDP의 Carbon Action 프로그램에는 254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 운동도 확산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금융기관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적 위기 앞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이며, 투자이며, 미래이며, 인류의 존속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Climate Change 한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CDP를 통해 보고한 감축목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DP에 응답한 기업들의 90%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는 있지만, 2015년 이후의 중기 또는 장기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전체 보고기업의 37%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가 장기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의 책임연구위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DP Climate Change Korea Report 2015'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 입법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서진석
대표이사, EY한영

EY한영은
CDP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단기적 경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한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2008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며, 2012년에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국가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 중 56%(환경부, 2013)에 해당하는 산업계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술 개발 및 거래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5년 10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책과 저탄소 기술개발에 총 13조 5,000억 달러(약1경 5,382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원자력, 풍력, 태양력 개발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설비 건설에만 매년 8,400억 달러가 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와 관련된 측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협조와 관심을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개선 사항입니다.

CD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 시장을 대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개척하였습니다. CDP는 CDP Climate Change, Supply Chain, Carbon Action Program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CDP는 지속가능경영평가 시스템을 평가하는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15년 현재 822개의 금융기관이 서명 기관으로 참여하고 전체 운용자산은 95조 달러에 이릅니다. CDP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500대 기업과 국내 250개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활동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DP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CDP는 Global Canopy Program을 통합하여 CDP Forest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CDP는 기후변화와 물 관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산림과 관련된 정보공개 촉구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Y한영은 CDP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 CDP는
지속가능경영평가 시스템을
평가하는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15년 현재 822개의 금융기관이
서명 기관으로 참여하고 전체 운용자산은
95조 달러에 이릅니다.

2015 Korea Leaders
CDP Korea Awards

2015 CDP Korea 명예의 전당

기업명	시상명	헌액연도
SK 하이닉스	Gold Club 3년	2013
삼성전기	Gold Club 2년	2014

2015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공개점수	성과밴드	연속수상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삼성물산	A	99	4년
		KT	A	100	3년
		LG전자	A	100	2년
		신한금융지주	A	100	2년
		현대건설	A	100	2년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	금융	신한금융지주	A	100	3년
		KDB대우증권	B	99	1년
		삼성화재	B	98	5년
		DGB 금융그룹	B	99	1년
	산업재	삼성물산	A	99	5년
		현대건설	A	100	4년
		삼성엔지니어링	A	100	1년
		대우건설	B	97	1년
	선택소비재	LG전자	A	100	7년
		코웨이	A	99	7년
		한국타이어	B	98	2년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지역난방공사	A–	100	1년
		S–Oil	A–	98	4년
	원자재	LG화학	A–	98	3년
		현대제철	A–	94	3년
		POSCO	B	99	7년
	제약건강	LG생명과학	B	99	2년
	통신	KT	A	100	6년
		LG유플러스	A	100	2년
	필수소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B	90	1년
		LG생활건강	C	97	2년
		아모레퍼시픽	B	91	2년
	IT	LG이노텍	A	100	1년
		삼성전자	A	98	7년
		삼성SDI	B	98	2년
탄소경영 특별상	점수향상	LG디스플레이	B	98	
		㈜LG	B	97	
		SK텔레콤	B	99	
	신규참여	우리은행	B	96	
		한솔제지	B	91	
	비상장기업	한국철도공사	C	91	
		한국동서발전	C	90	

CDP Korea Awards[1,2] 각 부문별 선정기준

명예의 전당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기업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평가 기준: 공개점수 50% + 성과점수 50%
- 대상 기업: 상위 5개 기업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
- 평가 기준: 공개점수 50% + 성과점수 50%
- 대상 기업: 섹터별 상위 3개
- 최소 점수 기준: 공개 및 성과평균 75점

탄소경영 특별상

(점수향상 부문)
- 평가 기준:
  공개점수 50% + 성과점수 50%
- 대상 기업:
  전년대비 점수 향상의 폭이 큰 3개 기업
- 수상기업 산정식:
  (2015년 점수 – 2014년 점수) X 2014년 점수
- 최소 점수 기준: 공개 및 성과평균 75점

(신규참여 및 비상장기업 부문)
- 신규참여 부문 대상 기업:
  신규 참여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 비상장기업 부분 대상 기업:
  CDP Korea 250 샘플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 평가 기준: 공개점수 100%
- 최소 점수 기준: 공개점수 75점

1.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포함한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선정되며, Korea 250 대상기업에 한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입니다.
2.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 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와 탄소경영 특별상은 섹터 별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경영과 정보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2015 Korea Leaders
The Climate A List Korea 2015

The Climate A List Korea 2015

기업명	섹터	성과밴드	공개점수
삼성물산	산업재	A	99
KT	통신	A	100
LG전자	선택소비재	A	100
신한금융지주	금융	A	100
현대건설	산업재	A	100
코웨이	선택소비재	A	99
LG이노텍	IT	A	100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A	100
삼성전자	IT	A	98
LG유플러스	통신	A	100
삼성전기	IT	A	100

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CDLI) Korea 2015

기업명	섹터	공개점수	성과밴드
KT	통신	100	A
LG전자	선택소비재	100	A
신한금융지주	금융	100	A
SK 하이닉스	IT	100	A–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100	A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100	A–
삼성전기	IT	100	A
현대건설	산업재	100	A
LG이노텍	IT	100	A
LG유플러스	통신	100	A

국민연금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법 시행
기후변화 관련 투자시 CDP 정보 활용 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손(big investor)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으로 주식에 총 160.1조원(국내 95.8조원, 해외 64.3조원), 채권에 총 284.8조원(국내 264.3조원, 해외 20.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도 2014년 말 기준으로 259개에 이른다.

이 국민연금기금이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를 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어 올해 1월말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ESG 고려는 재량이지만 공시는 의무사항으로, 이목희 의원이 발의하고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입법지원을 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계획·조직·활동내역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 기준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현황(공시대상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내역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이다. 의결권은 ESG를 고려해 행사한다고 지침에 명시해 놓았고, 관련 내용도 공시하고 있다.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ESG 기준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포함되어 있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이 평가지표로 우선 고려된다. 이 평가지표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 관련 이슈에는 청정생산과 친환경 제품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CDP 서명기관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투자시 CDP의 정보공개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금 규모를 2014년 말 기준 6.15조원으로, 지분율 5% 보유 국내 기업 중 사회책임투자 자금이 일부라도 투자되어 있는 184개 기업 명단도 공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공적연기금에 국민연금과 같은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The Climate A List 2015

Company	Country
Consumer Discretionary	
Best Buy Co., Inc.	USA
BMW AG	Germany
Coway Co Ltd	South Korea
Fiat Chrysler Automobiles NV	Italy
Las Vegas Sands Corporation	USA
LG Electronics	South Korea
Melia Hotels International SA	Spain
NH Hotel Group	Spain
Nissan Motor Co., Ltd.	Japan
Sky UK Limited	United Kingdom
Sony Corporation	Japan
Wyndham Worldwide Corporation	USA
YOOX SpA	Italy
Consumer Staples	
Asahi Group Holdings, Ltd.	Japan
Brown-Forman Corporation	USA
Diageo Plc	United Kingdom
J Sainsbury Plc	United Kingdom
Kesko Corporation	Finland
L'Oréal	France
Nestlé	Switzerland
Philip Morris International	USA
SABMiller	United Kingdom
Suntory Beverage & Food	Japan
Unilever plc	United Kingdom
Energy	
Galp Energia SGPS SA	Portugal
PTT Exploration &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	Thailand

Company	Country
Financials	
Bank of America	USA
BNY Mellon	USA
CaixaBank	Spain
Citigroup Inc.	USA
Credit Suisse	Switzerland
Dexus Property Group	Australia
Foncière des Régions	France
Grupo Financiero Banorte SAB de CV	Mexico
Host Hotels & Resorts, Inc.	USA
ING Group	Netherlands
Intesa Sanpaolo S.p.A	Italy
Investa Office Fund	Australia
Investec Limited	South Africa
Kiwi Property Group	New Zealand
Macerich Co.	USA
MAPFRE	Spain
Nedbank Limited	South Africa
Principal Financial Group, Inc.	USA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	Austria
Shinhan Financial Group	South Korea
Simon Property Group	USA
Standard Chartered	United Kingdom
State Street Corporation	USA
T.GARANTİ BANKASI A.Ş.	Turkey
The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USA
Health Care	
Roche Holding AG	Switzerland
Industrials	
Abengoa	Spain
Carillion	United Kingdom
CNH Industrial NV	United Kingdom

Company	Country
CSX Corporation	USA
Dai Nippon Printing Co., Ltd.	Japan
Deutsche Bahn AG*	Germany
Deutsche Post AG	Germany
FERROVIAL	Spain
Huber + Suhner AG	Switzerland
Hyundai E&C	South Korea
Kingspan Group PLC	Ireland
Kone Oyj	Finland
Obrascon Huarte Lain (OHL)	Spain
Pitney Bowes Inc.	USA
Raytheon Company	USA
Royal BAM Group nv	Netherlands
Royal Philips	Netherlands
Samsung C&T	South Korea
Samsung Engineering	South Korea
Schneider Electric	France
Senior Plc	United Kingdom
Shimizu Corporation	Japan
Siemens AG	Germany
Stanley Black & Decker, Inc.	USA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USA
Information Technology	
Accenture	Ireland
Adobe Systems, Inc.	USA
Alcatel - Lucent	France
Apple Inc.	USA
Atos SE	France
Autodesk, Inc.	USA
Cisco Systems, Inc.	USA
EMC Corporation	USA

Company	Country
Google Inc.	USA
Hewlett-Packard	USA
Hitachi, Ltd.	Japan
Juniper Networks, Inc.	USA
LG Innotek	South Korea
Microsoft Corporation	USA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South Korea
Samsung Electronics	South Korea
Materials	
BillerudKorsnäs	Sweden
Givaudan SA	Switzerland
Harmony Gold Mining Co Ltd*	South Africa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USA
Kumba Iron Ore	South Africa
Sealed Air Corp.	USA
Symrise AG	Germany
The Mosaic Company	USA
Telecommunication Services	
Belgacom	Belgium
KT Corporation	South Korea
LG Uplus	South Korea
Sprint Corporation	USA
Swisscom	Switzerland
Telefonica	Spain
Telenor Group	Norway
Utilities	
ACCIONA S.A.	Spain
E.ON SE	Germany
EDP - Energias de Portugal S.A.	Portugal
Entergy Corporation	USA
Iberdrola SA	Spain

*Deutsche Bahn responded through Mittelstand program and is not included in analysis
*Harmony Gold Mining is not part of analysis sample

2015 Leadership Criteria

기업의 응답자료는 매년, 성과와 공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

성과 점수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투명성 등 기업이 보고한 기후변화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며, CDP를 통해 보고된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높은 성과점수는 기업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거나, 사업 운영 및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등을 통해 자사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검증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개 점수는 기업이 응답한 내용의 완성도와 질을 평가하며, 기업이 CDP문항의 포맷에 맞게 적절하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높은 공개점수는 기업이 자사의 탄소발자국, 기후변화 전략,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과점수와/또는 공개 점수가 높은 기업은 A List (성과밴드 A)와/또는 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CDLI)에 포함되게 된다. 공개된 점수는 CDP 보고서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터미널, 구글 파이낸스,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후변화 평가방법론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밴드 A의 획득여부는, 기업이 (평균온도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더욱 잘 반영하게 되었다.

CDP는 평가와 관련한 이해관계 상충 문제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dp.net/Documents/Guidance/2015/CDP-conflict-of-interest-policy.pdf

A List 및 CDLI의 기준

응답기업이 A List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온라인응답시스템(ORS)을 통해 기후변화정보 제출 및 공개(Public)
- 성과점수 86점 이상 획득
- 12.1a번 문항(감축활동을 통한 (전년도 총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성과)에서 최고점 획득(4% 이상 감축)
- 글로벌 Scope 1 & Scope 2 총배출량 공개
- Scope 1 & Scope 2 배출량 검증 문항에서 최고점 획득
- CDP응답내용 또는 기타 공개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이 A List에 편입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제외될 수 있음

참조: 86점 이상 성과점수를 획득하였으나 A List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성과밴드 A-가 부여되며, A List에 포함되지 않음.

CDL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온라인응답시스템(ORS)을 통해 기후변화정보를 제출 및 공개(Public)
- 공개점수가 지역별 샘플(Korea 250)의 상위 10%에 포함

성과 커뮤니케이션

CDP 미션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이 이룬 성과를 공개하고, 아직 관리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DP는 기후변화 성과 평가 결과의 표기를 변경하고, 투자자를 위한 섹터별 분석 보고서를 도입하였다.

CDP 평가시스템 변경

2015년 Water와 forest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Climate change와 Supply chain 프로그램의 평가 시스템이 변경된다. CDP는 기업의 환경 성과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성과점수 중심으로 기업의 평가결과를 표기할 예정이다. 보고기업은 아래 4가지 밴드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

-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 평가
- **Awareness** 환경 이슈와 위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정도를 평가
- **Management** 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기업이 실행한 활동, 정책, 전략을 평가
- **Leadership** 환경 경영과 관련한 특정 영역에서 해당 기업의 활동 가운데 모범사례best practice 평가

CDP는 이러한 평가방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된 평가 시스템은 2015년 CDP Water 및 Forest 프로그램에 먼저 도입되며, 변경된 Climate Change 평가방법은 2016년 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2016년 말에 발표된다.

저탄소 투자, 주류 투자가 되다

투자매니저들은 환경 데이터를 자신의 투자 모델에 통합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산업 내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모델화함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George Serafeim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자본시장도 기후변화를 고려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주류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자산운용기관들은 탄소로 인한 위험과 기회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호주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연기금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 투자자산의 1/3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CDP의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CDP는 이들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CDP가 처음으로 투자기관들에게 기업의 정보 공개요청을 위한 서명을 요청하였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무감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AIG,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BlackRock, Credit Suisse, Deutsche Bank, HSBC, ING, Itau, J.P. Morgan Chase, Macquarie, Nomura, Santander, Wells Fargo 등 전세계의 메이저 금융기관이 CDP를 지지하고 있다.

Bloomberg는 기업별 점수, 순위 등 새로운 인덱스 펀드의 기본이 되는 CDP 데이터를 자사의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Bloomberg의 지속가능성 책임자 Curtis Ravenel는 "CDP가 없었다면, 투자업계의 환경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을 것이며, CDP는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도록 움직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은 유럽의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의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Goldman Sach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 최고 책임자로 임명된 Hugh Lawson는 "지난 2년동안, ESG는 자사 고객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기후변화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는 Standard & Poor's and MSCI에 의해 개발된 지수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상의 탄소 집약도를 줄일 수 있는 상품과 기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저탄소 기술 및 탄소 감축 기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State Street and BlackRock 의 ETF(상장지수펀드), BNY Mellon의 Green Beta Investing Approach, Northern Trust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략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필수 요소이다. CDP는 전세계 시가총액의 55%*에 해당하는 5,500여개 기업의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또한, CDP를 통해 제공되는 정성적 데이터는 투자자들의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사 Rockefeller & Co.는 CDP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수자원, 온실가스와 자사 공급망의 투명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Rockefeller의 지속가능·임팩트 투자 최고 책임자 Farha –Joyce Haboucha는 "우리는 (환경·사회적 요소에 재무적) 지표를 결합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요긴한 정보들은 우리가 기업의 경영층과 대화할 도움을 준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며, '당신의 기업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이제 전세계 5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ABP(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자산: 3,500억 유로, 가입자: 280만)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기 위해서는, 자사가 보다 강화된 ESG기준을 충족시킴을 증명해야 한다. ABP는 향후 5년에 걸쳐 전체 900억유로의 주식투자기금 가운데 300억 유로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ABP의 회장 Corien Wortmann는 "새로 도입한 포트폴리오 상 탄소감축 전략이 투자 수익률에는 부적적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적극적 또는 간접적 인게이지먼트는, 기업의 정보 공개 수준은 그 기업의 관리 수준과도 연결되며, 기후변화대응이 있어 업종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도 높다는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George Serafeim는 "CDP와 같은 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제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연합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1.4조 달러(US)의 자금이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펀드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 2년전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유럽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자산가운데 절반이상이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의장이자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를 맡고 있는 Mark Carney는 장기 투자자에게 "지평선 경계의 비극"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최근 런던의 Lloyd은행에서 있었던 발표에서, CDP를 예로 들며,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CDP가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인, 명확한 탄소가격과 스트레스 테스트가 세계 경제 회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말했다.

주류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주주들의 안정된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들에게 미래의 환경 위험과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미지역 CDP 2015 기후변화 보고서는 저탄소 투자의 트렌드와 혁신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출처: Bloomberg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운데, 선도적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저탄소 글로벌 경제 체제로의 변환으로 인한 전략적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2010	2015
(분석된) 응답기업	1,799	1,997
(분석된) 응답기업 시가 총액 (백만 $)*	25,179,776	35,697,470
Scope 1	5,459 $MtCO_2e$	5,382 $MtCO_2e$
Scope 2	1,027 $MtCO_2e$	1,301 $MtCO_2e$
(2010 년 응답한 1,307 개 기업 기준) Scope 1	4,135 $MtCO_2e$	4,425 $MtCO_2e$
(2010 년 응답한 1,307 개 기업 기준) Scope 2	794 $MtCO_2e$	887 $MtCO_2e$

* 2010년 1월 1일과 2015년 1월 1일 시가총액기준
(출처: 블룸버그)

그리고 그들은 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95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822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CDP를 통해 공개된 기업의 최신 기후변화 정보에 따르면, 보고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과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 이다.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 각국 정부는 새로운 국제적 기후협약을 위해 파리에서 만나게 된다. 협상의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은 앞으로 저탄소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UNEP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기업, 도시 및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를 통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3기가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각국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 사이의 간극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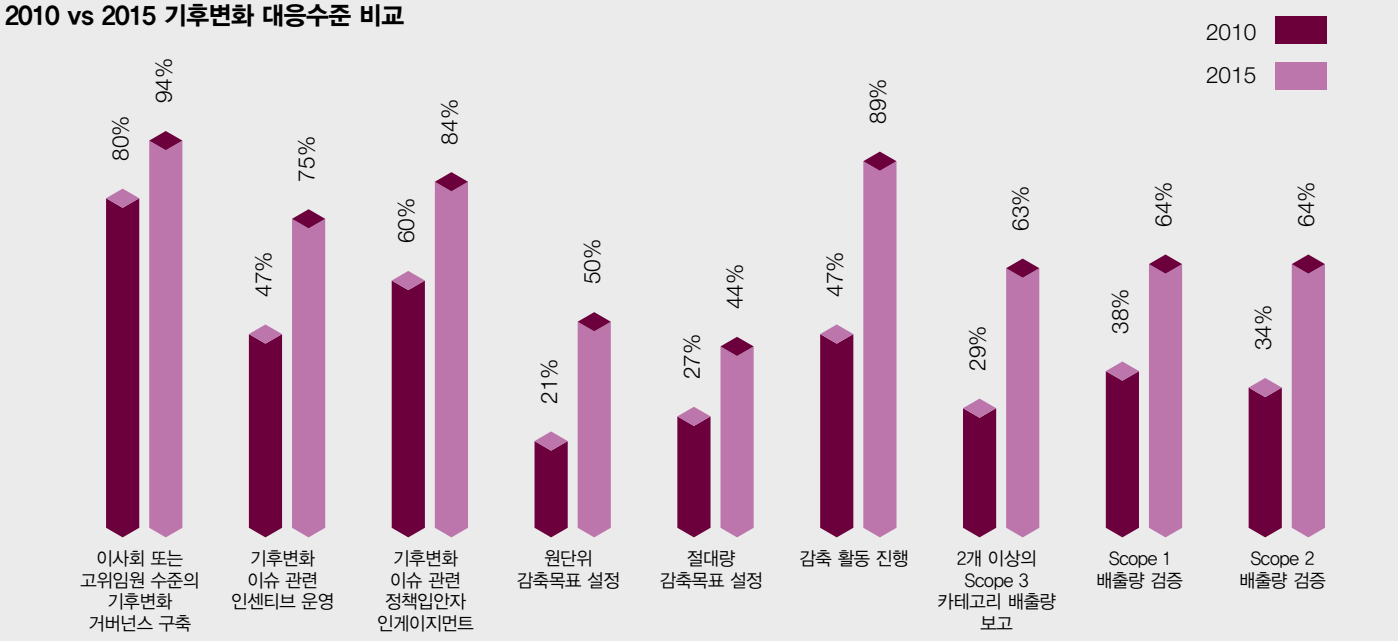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화석연료 의존성에서 벗어 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CDP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기업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이 데이터는 기업, 투자자,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과 2015년에 CDP를 통해 보고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맞이하고 있던 2009년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인게이지먼트 활동; 선도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율성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반면, 분석 데이터는 인류가 기

2010 vs 2015 기후변화 대응수준 비교



> J Sainsbury는 전력, 천연가스, 디젤, 탈루배출 등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 J Sainsbury Plc

> CDP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으며… 투자에 잠재되어 있는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습니다.
>
> Anna Kearney
> BNY Mellon

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욱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인게이지먼트 활동 증가

본 보고서는 2010년에 제출된 1,799개 기업의 응답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각 지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998개 기업을 선택하였다. 전 세계 55개국에 분포한 대상 기업은 세계 기업 시가총액의 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기업의 기후변화 경영에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당시 모범 사례로 꼽혔던 활동들은 이제 일반적인 활동이 되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기업에서 기후 이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책임을 이사회나 고위 경영진에 두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0년 80%, 2015년 94%),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기후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7%, 2015년 7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2010년 27%에서 현재 44%의 기업이 총량기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원단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의 비율도 2010년 20%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인류의 화석 연료 사용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배출량 산정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입증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킨 주요한 원인 중 다른 하나는 늘어나고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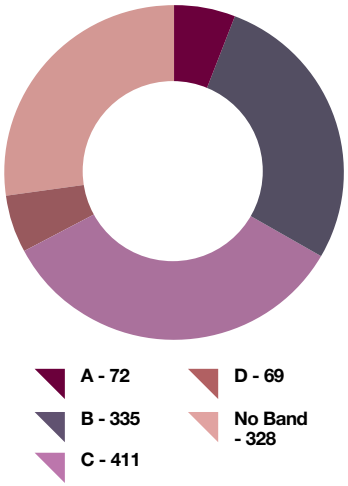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CDP를 통해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 투자자의 수는 2010년 534개에서 822개로 54%가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은 몇 가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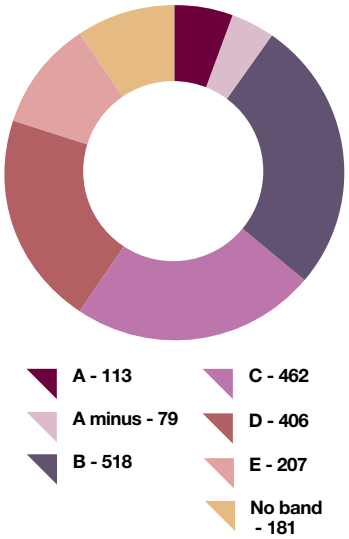
예를 들어,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Aiming for A'연합을 조직하여,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CDP의 기후변화 A List에 들기 위한(또는 유지하기 위한) 해당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A List는 CDP 보고연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선정한 리스트를 의미한다. 2015년 'Aiming for A'연합은 BP와 Shell, Statoil 사(社)의 연례회의에서 진전된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주주들의 결의를 각각 100%에 이르는 투표율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투자자들은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6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은 매년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여 공개하기로 한 몬트리올 탄소 서약(Montréal Carbon Pledge)에 서명했다. 몬트리올 탄소 서약은 파리협상이 열리는 12월까지 서명에 참여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자산 총액 3조 달러(US)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무적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CDP에서 도입한 환경 영향과 기업의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섹터 별 연구 등과 같은 혁신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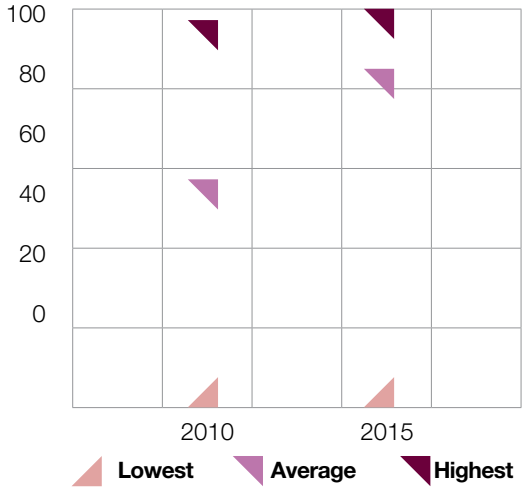
2010 글로벌 성과밴드 분포*



2015 글로벌 성과밴드 분포



글로벌 공개점수 변화 비교



* 2010년에는 일부 기업의 성과점수는 평가되지 않음.

> Infosys는 2018년 회계연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100% 목표를 공표하였으며, 200MW 규모의 태양광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 Infosys

> Google은 탄소가격을 리스크 분석 모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의 리스크 분석 시, 미래 예상 에너지 비용에 탄소가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Google

투자 기업의 이용이 그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보다 앞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0조 달러(US)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탄소제거연합(PDC,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은 투자된 자산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DP도 설립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인 감축활동 촉진

투자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CDP에 보고된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의 수는 2011년 7,285개(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2011년 데이터와 비교)에서 2015년 8,341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보고된 프로젝트 유형은 건물 및 생산 과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재활용 프로그램, 카 쉐어링 등 행동 개선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었다.

보고기업의 1/3 이상(36%, 550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과 비교하여 6%가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적으로, 2015년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한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활동의 수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두 배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저탄소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도 또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응답 기업의 71% (1,425개 기업)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도입하였으며(2011 62% 1,185개 기업), 이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자의사 결정에 내부적으로 설정한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CDP에 응답한 기업 가운데 316개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4년 150개 기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263개의 추가적인 기업들도 2년 내에 내부 탄소가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총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기업의 2015년 Scope 1 배출량(2010년 응답기업 기준)은 2010년 에 비해 7.1% 증가했으며, 전력구매를 포함하는 Scope 2 배출량도 11.4% 증가하였다. 비록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하나, 온실가스 총량 증가분은 동일 기간 동안 분석기업의 총 시가총액 상승 비율(67%)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으며, 마찬가지로 분석기업이 배출량 감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진전, 그러나 더 많은 노력 필요

CDP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이해도, 관리 수준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활동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평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IPCC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41%~72%로 떨어져야 한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감축목표 수준이 높이 않았으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기업의 절대량 감축목표 중 절반 이상(51%)의 목표연도는2014년 또는 2015년이었으며,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한 기업은 전체의 1/3(32%), 그리고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오직 6%에 불과하였다. 원단위 감축목표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단기 목표 설정 비율이 높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기업들이 장기 목표 설정 이전에 파리 기후변화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berdrola, Enel, NRG와 유틸리티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온실가스 다 배출 기업은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의 촉진, 새로운 시장 발굴, 장기 회복력resilience 강화 등 명확한 전략적 방향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기업들은 자사의 이러한 의지를 We Mean Business의 'Commit to Action' 활동 서약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CDP는 기후변화 선도 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업들, 특히 온실가스 다 배출 섹터의 기업들,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DP는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기업이 기후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섹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CDP는 성과점수에 과학에 기반한 목표 설정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방법론의 수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CDP는 온실가스 다배출 섹터에 속하는 기업의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각 섹터에 속하는 기업의 성과

316개 기업은 본보고서에서 분석에 포함된 1,9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내부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CDP에 보고한 총 기업의 수는 437개 기업이며, 계획 중이라고 보고한 기업의 수는 583개였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Putting a price on risk: Carbon pricing in the corporate world (https://www.cdp.net/CDPResults/carbon-pricing-in-the-corporate-world.pdf)

>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상은 전세계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담대한 노력을 할수록, 그 보상 또한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협상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
> Unilever

와 모범 사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업종과 공동으로 섹터별 질의서 및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5년도에는 선별된 일부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섹터별 질의서와 평가 방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기업도 파리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올해 12월 파리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수의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기후협약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CDP 응답결과에 따르면, 자사의 이사회가 지구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 협약을 지지하냐는 물음에 805개 기업이 찬성한다고 답변한 반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111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해당 질문에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고, 331개 기업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후변화 협상을 시급한 경영전략상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

방향은 명확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기업에게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CDP는 투자자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CDP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사업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해오고 있다. 하지만 CDP 데이터는 여전히 기후변화로 인해 다가오고 있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환경 위험 분석을 위한 노력

CDP미션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성과를 공개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는 기후변화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CDP의 미션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CDP는 투자자들을 위한 섹터별 연구를 도입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섹터 별 연구는 환경영향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를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환경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각 섹터 별 주요 환경 및 규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성과 및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전력, 유틸리티, 화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투자자들의 해당 섹터 내 기업별 수준 판단 및 인게이지먼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CDP는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관련 위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발자국의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

CDP는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평가파트너인 사우스 폴 그룹 South Pole Group (한국: EY한영)과 공동으로 기업의 물 경영 수준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업들은 CDP 물 정보 공개 프로세스를 통해 자사의 사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이용 가능한 수자원 및 수질에 대한 자사의 취약성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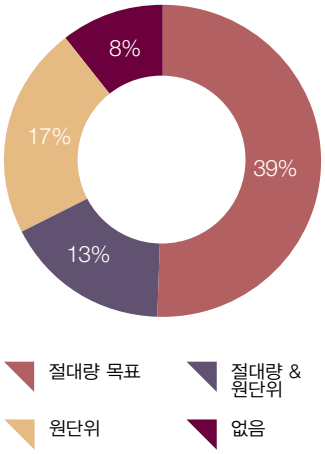
CDP는 이번 평가 방법의 도입이 기업의 물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고되는 정보의 질 향상과 기업의 물 경영 성과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DP wate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쟁사 벤치마킹 및 모범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자사의 물 경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CDP water에 참여한 기업의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인 '리더십' 에 포함된 기업의 명단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의 도입으로 물 관련 사항이 기업의 관리하는 주요 전략 이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 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CDP는 이번 평가 방법의 도입은 기업의 수자원 관리 전략의 소통,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및 경쟁 우위의 확보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 더 나은 수자원 관리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Overview
감축목표 수립 기업 많지만, 단기목표에 집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형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교토 프로토콜에 이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를 결정하게 될 UNFCCC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2030년 BAU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국내감축 25.7%,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감축 11.3%)를 포함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NDC)를 제출하였다.
오늘날 기업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 기업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기업은 정부 및 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저탄소 경제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임은 분명하다.

감축목표 수립 비율 9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은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첫걸음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CDP 2015에 응답한 한국 기업 가운데 90%는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많은 수의 한국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기목표에 집중

한국기업이 보고한 감축목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대량 목표와 단기 목표 설정 비율이 높았다. 2015년 이후의 중기 또는 장기 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수는 25개로 전체 보고기업의 37%에 불과하였고, 2014년 또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보고한 기업이 전체의 2/3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장기목표를 보고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함께 단기목표로 수정한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보고된 감축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통해 할당 받은 양을 목표로 설정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할당량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경제계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해 왔다. 더불어 파리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안을 발표한 반면, 한국의 감축안은 국제사회로부터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감축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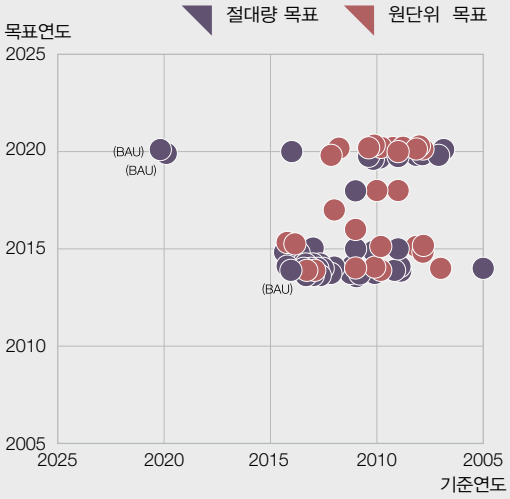
장기적 감축목표 수립 필요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이며 장기적인 이슈이다. 그리고 FTA, TPP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시장의 경계는 허물어 지고 있다. 글로벌 저탄소 경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거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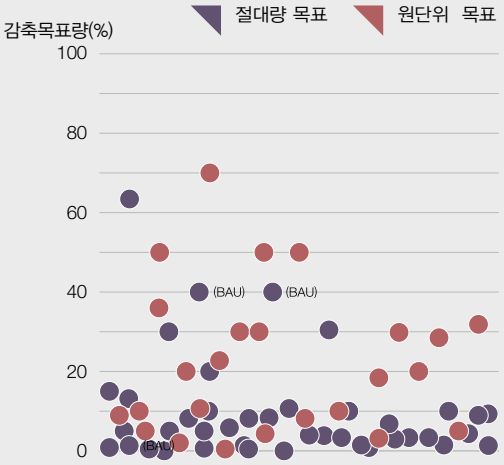
규제는 기업이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규제를 반영한 단기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저탄소 경제하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단기목표와 더불어 자사의 비전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LG그룹의 사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LG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LG의 경우, 개별 그룹사들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별개로, 주요 8개 그룹사의 통합 감축목표를 수립 보고하였다. 2020년 BAU 대비 40% 감축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목표연도 분포*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 목표량 분포



* 그래프의 우상향(기준연도가 낮고, 목표연도가 높을 수록)에 위치한 목표일수록, 보다 강력한 목표를 의미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섹터		기업명	감축율(%)	목표연도
금융	절대량	동부화재	10	2015
		KB금융지주	7.9	2014
		우리은행	4.8	2014
		삼성화재	3	2014
		대우증권	2	2014
		신한금융지주	1	2014
	원단위	현대해상	20	2016
		DGB금융지주	1	2014
산업재	절대량	(주)LG	40	2020
		삼성중공업	10	2015
		두산중공업	7.6	2020
		현대건설	7.1	2018
		대우건설	4	2015
		KCC	1	2014
		GS건설	0.8	2014
	원단위	현대상선	50	2020
		삼성엔지니어링	20	2020
		삼성물산	4	2014
		LS산전	2	2014
선택소비재	절대량	LG전자	10.3	2020
		제일기획	5	2014
		S&T모티브	3	2015
		호텔신라	3	2014
		넥센타이어	8	2014
	원단위	코웨이	50	2020
		현대모비스	36.7	2014
		현대자동차	10	2010
		한국타이어	5	2017

섹터		기업명	감축율(%)	목표연도
에너지	절대량	S-Oil	8	2014
원자재	절대량	SK케미칼	40	2020
		한솔제지	13.9	2014
		현대제철	1	2014
	원단위	롯데케미칼	30	2018
		LG화학	11.1	2015
		한화케미칼	10	2014
		포스코	9	2020
유틸리티	절대량	한국전력공사	30.7	2014
		한국가스공사	0	2014
	원단위	한국지역난방공사	5	2020
제약건강	원단위	LG생명과학	18.1	2014
통신	절대량	KT	20	2020
		SK텔레콤	15	2020
		LG유플러스	1	2014
필수소비재	원단위	LG생활건강	32	2020
		아모레퍼시픽	8	2015
		㈜아모레퍼시픽그룹	30	2020
IT	절대량	LG이노텍	4.1	2014
		SK C&C	1	2020
	원단위	삼성전자	70	2020
		SK 하이닉스	50	2015
		삼성전기	30	2015
		LG디스플레이	29	2020
		삼성SDI	3	2015

그룹별 비교: 컨트롤타워 갖춘 그룹, 공개·성과 모두 높다

한국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 구조가 오히려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이슈 대응에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그룹별 CDP 대응 수준을 비교를 통해, 저탄소 경제에서 어떤 그룹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G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컨트롤타워역할을 한 ㈜LG를 중심으로 CDP 대상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10개 그룹사가 모두 응답하여 2년 연속 응답율 100%를 달성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 그룹사의 기후변화 대응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성과밴드 A 또는 A–를 받은 그룹사의 수는 4개(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그룹사 평균 성과밴드는 B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률 상위 그룹 목록

그룹명	응답율	응답기업 수 / 대상기업 수
LG	100%	10 / 10
아모레퍼시픽	100%	2 / 2
산업은행	100%	2 / 2
한국타이어	100%	2 / 2
삼성	75%	12 / 16
두산	67%	2 / 3
현대	67%	2 / 3

삼성그룹은 전체 16개 CDP 대상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응답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률은 2012년 100%에서 올해 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의 인수·합병, 신규상장 등의 이슈가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응답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카드와 에스원은 2연연속으로 응답을 거부한 점과 성과밴드 A 또는 A– 기업 수가 작년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점 등 다시 한번 그룹 차원의 기후변화 리더십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삼성

응답률 **75%** (12/16)

그룹 평균 성과밴드[1] **C(B)**

A-List[2]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F-List[3]
삼성SDS
삼성카드
에스원
제일모직[a]

LG

응답률 **100%** (10/10)

그룹 평균 성과밴드 **B(B)**

A-List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A–)

F-List

SK

응답률 **50%** (10/5)

그룹 평균 성과밴드 **D(B)**

A-List
SK하이닉스 (A–)

F-List
SK㈜✖[b]
SKC✖
SK가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응답률 **44%** (4/9)

그룹 평균 성과밴드 **D(B)**

A-List
현대건설
현대제철(A–)

F-List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c]

1. 미응답 기업의 성과점수는 '0'점으로 전체 대상기업의 성과점수를 평균. 괄호안의 밴드는 응답기업의 성과점수 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2. 성과밴드 'A'를 획득한 기업 리스트, 성과밴드 'A–'를 획득한 기업은 별도 표기.
3. 미응답(응답거부, 무응답) 기업 리스트.

✖3년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뛰어난 기후변화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나, 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K그룹의 경우, ICT, 에너지, 반도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산업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룹차원의 더욱 강력한 기후변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BP, 쉘, 토탈 등 글로벌 10대 에너지 기업들이 파리 기후변화협상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SK가스는,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에너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체 9개 대상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은 각각 성과밴드 A와 A–를 획득하는 등 높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비교해 볼 때, 현대자동차그룹의 더욱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포드, GM, 토요타 등의 글로벌 자동차 그룹은 이제 단순한 CDP를 통한 자사의 정보공개 차원을 넘어, CDP Supply Chain 가입을 통해 공급망의 기후변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 향상과 자사의 친환경자동차 성능 향상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공급망 관리는 이전에 아직도 주요 자동차 관련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수송) 등이 CDP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CJ, 롯데, 포스코 그룹의 경우, 각각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만이 그룹에서 유일하게 응답하였다. 2개의 대상기업과 더불어 한화환경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CDP 비대상 그룹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자발적으로 응답한 한화그룹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대조를 이루었다.

CJ

응답률 **14%** (1/7)

그룹 평균 성과밴드 **E(-)**

A-List
–

F-List
CJ CGV✖
CJ E&M✖
CJ대한통운✖
CJ오쇼핑✖
CJ㈜✖
CJ헬로비전✖

롯데

응답률 **17%** (1/6)

그룹 평균 성과밴드 **E(B)**

A-List
–

F-List
롯데삼강✖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포스코

응답률 **25%** (1/4)

그룹 평균 성과밴드 **E(B)**

A-List
–

F-List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포스코켐텍✖

한화[d]

응답률 **50%** (2/4)

그룹 평균 성과밴드 **D(C)**

A-List
–

F-List
한화생명
한화테크윈[e]

a 삼성물산과 합병

b SK C&C와 합병

c 현대제철과 합병

d 자발적 참여 (한화그룹: 비상장 한화계열사) 분석에서 제외

e 사명변경 삼성테크윈 → 한화테크윈, 2016년 CDP 응답 계획 전달

2010 vs 2015 한국기업 수준 비교

Korea	2010	2015
(분석된) 응답기업	77 (7)	74 (4)
(분석된) 응답기업 시가 총액(백만$)	478,499	639,267
Scope 1	113.1 $MtCO_2e$	140.9 $MtCO_2e$
Scope 2	21.8 $MtCO_2e$	47.4 $MtCO_2e$
2010년 응답 동일 기업 기준 Scope 1: 1307개 기업	97.9 $MtCO_2e$	111.7 $MtCO_2e$
2010년 응답 동일 기업 기준 Scope 2: 1307개 기업	19.9 $MtCO_2e$	35 $M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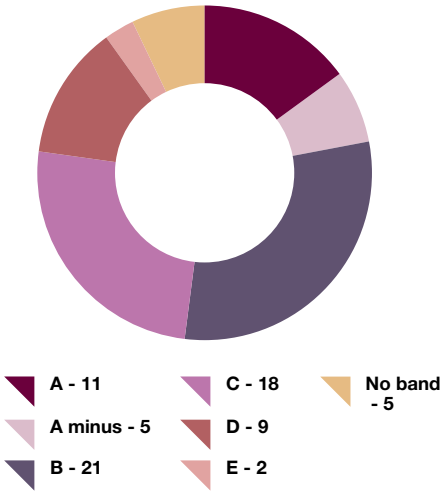
괄호안의 숫자는 응답마감기한이후 제출한 기업 수이며,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돋보였다. 74개 참여기업 중 14%에 해당하는 11개 기업이 A List로 선정되어 전세계 평균 보다 3배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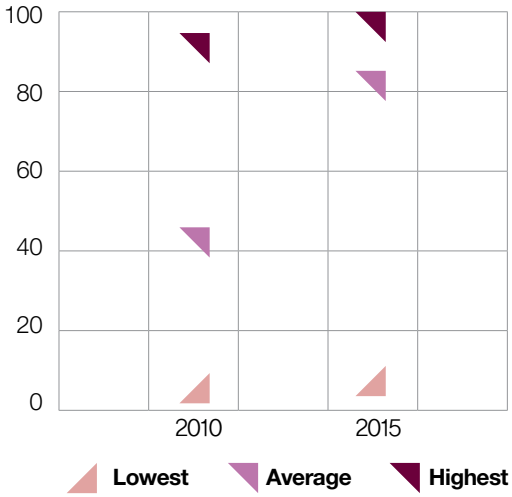
2010 Korea 성과밴드 분포*

* 2010년에는 Global 500 샘플에 포함된 5개 한국기업의 성과점수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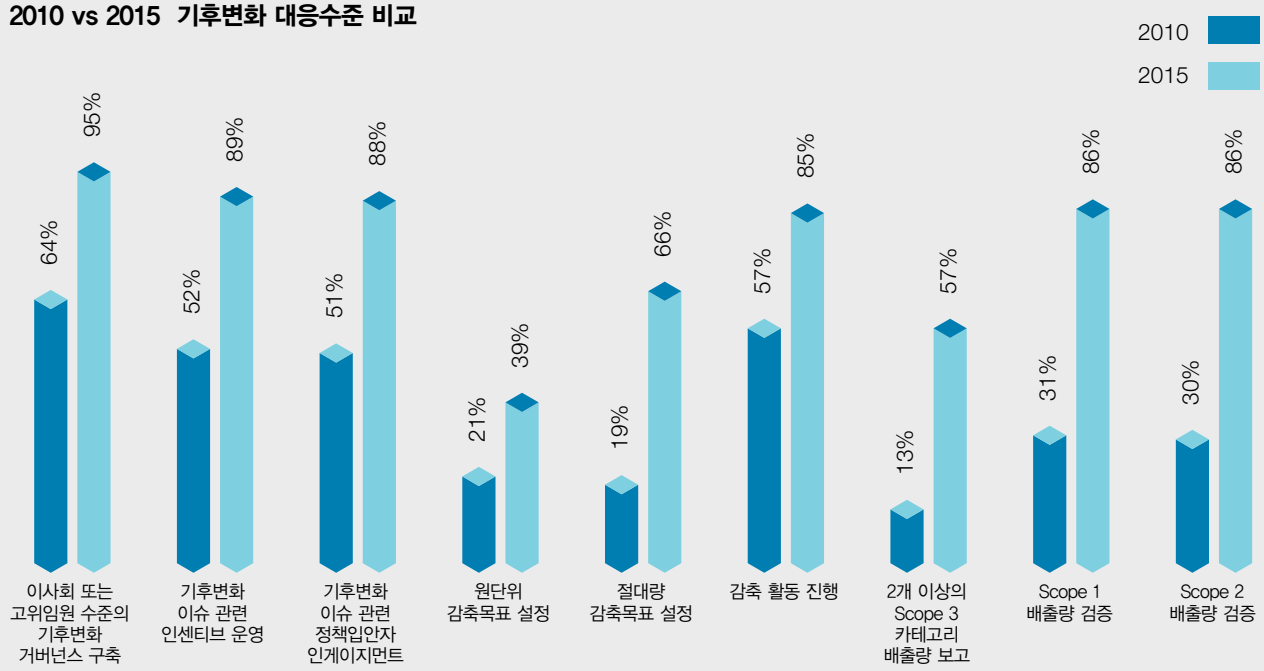
2015 Korea 성과밴드 분포



Korea 공개점수 변화 비교



2010 vs 2015 기후변화 대응수준 비교



14%

A List 선정기업 비율

하지만 응답기업의 온실가스 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응답기업이 보고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총 수는 250개로 2011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평균 증가율은 14%에 비해 12% 높은 결과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또한 31%로 201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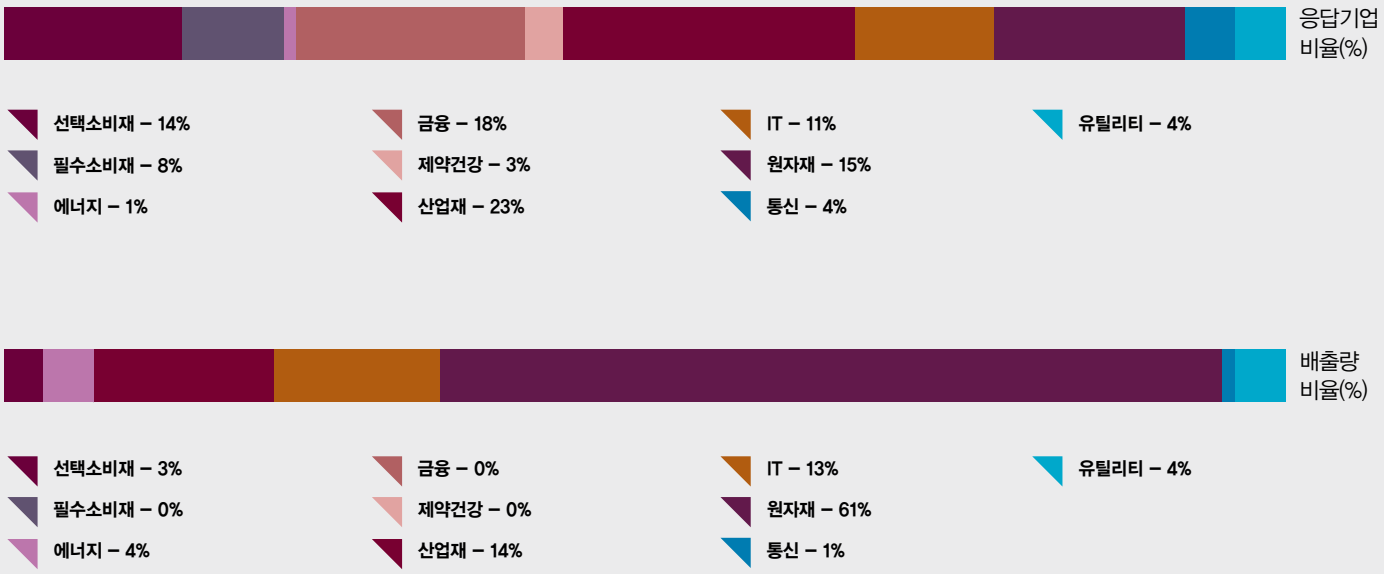
응답기업의 공개점수와 성과점수는 2010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 특히, 응답기업의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검증비율은 86%로, 2010년(30%)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평균인 64%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의 응답기업이 절대량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보고하여, 글로벌 샘플의 4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기업의 높은 검증 비율 및 절대량 목표 설정 비율은 한국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아직 한국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성과(보고연도: 2014)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의 2015년 평균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LG그룹은
Green 2020 목표를 수립하여,
녹색사업(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친환경 조명 등) 연구·개발 및 설비,
신사업 발굴과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위해
202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물론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LG

섹터별 응답기업 및 배출량 비율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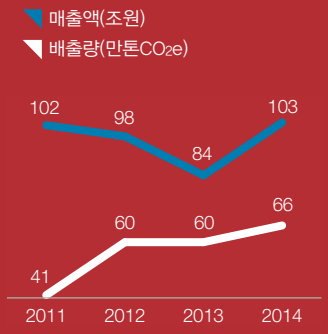
응답률

44% (15/3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삼성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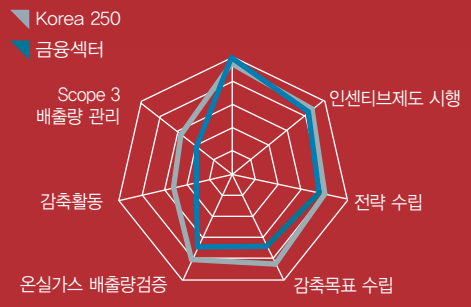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기업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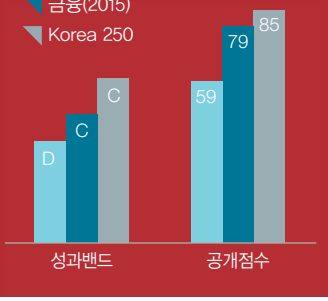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금융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한화생명 삼성카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한화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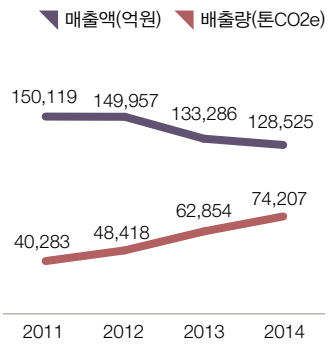
기업은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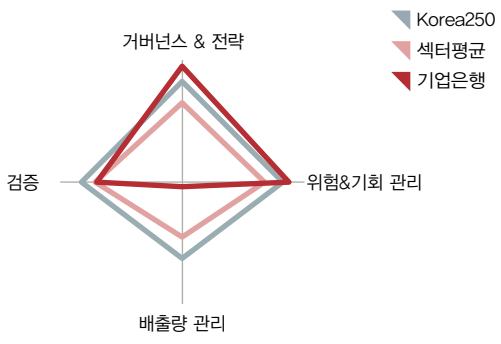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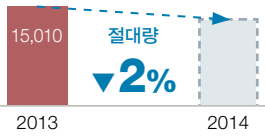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대우증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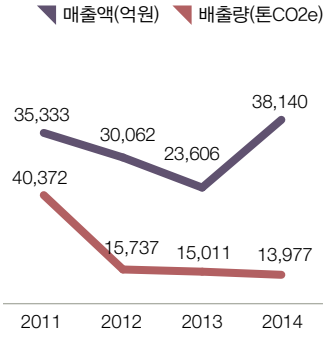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2%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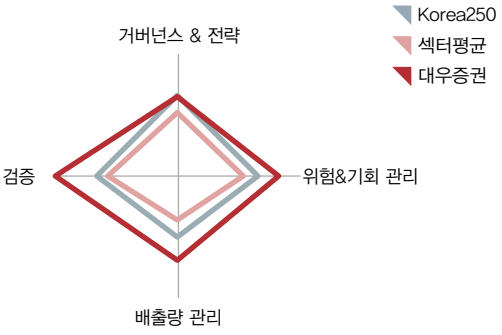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동부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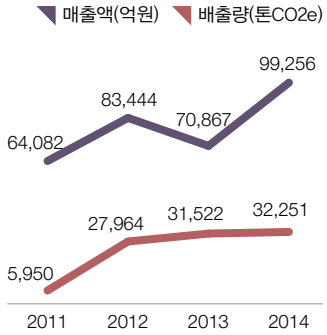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2011년대비
2015년까지
절대량 10%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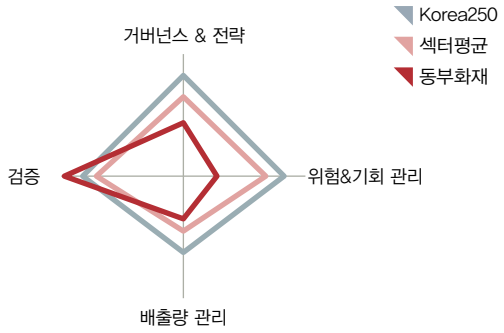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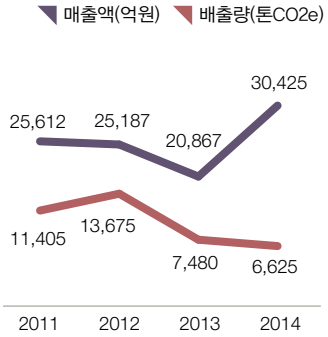
삼성증권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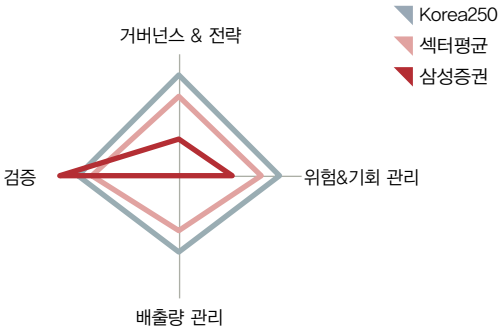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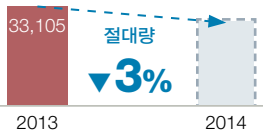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화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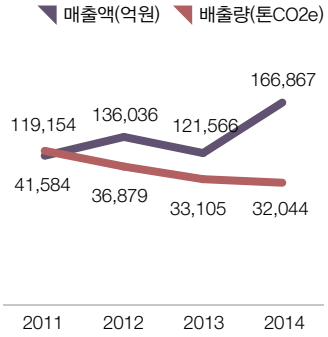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3% 감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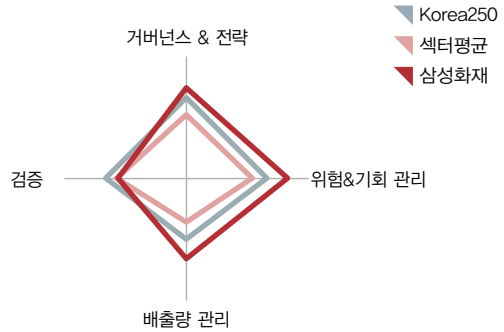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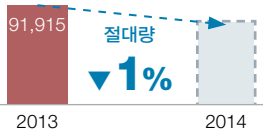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신한금융지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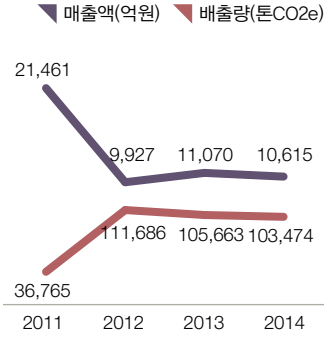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1%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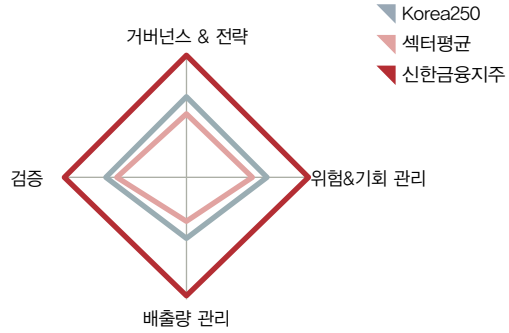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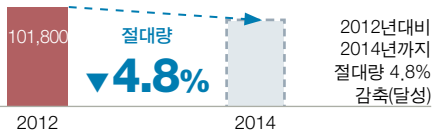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우리은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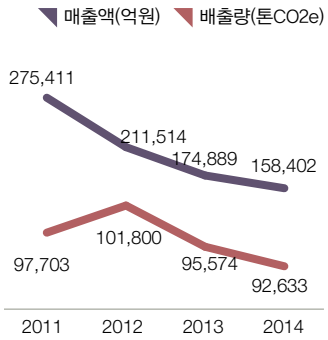


2012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4.8%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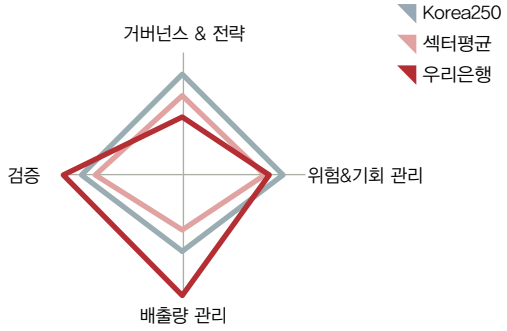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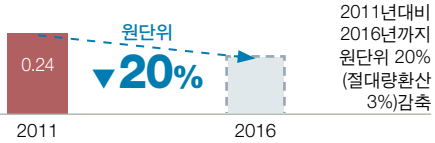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해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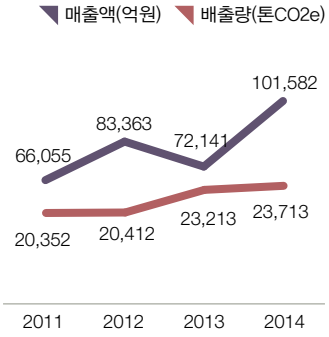


2011년대비 2016년까지 원단위 20% (절대량환산 3%)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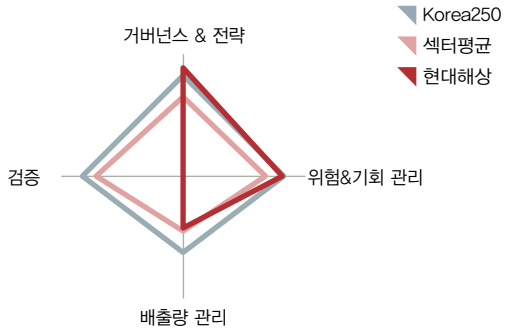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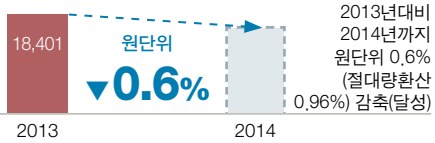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DGB금융지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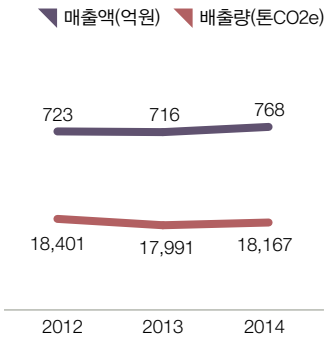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0.6% (절대량환산 0.96%)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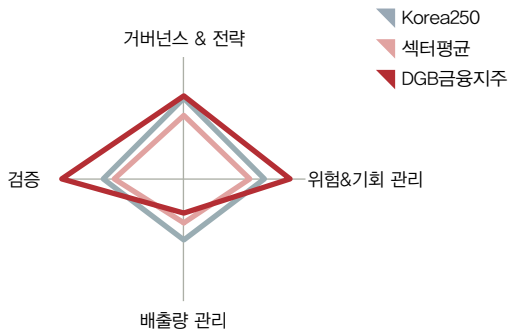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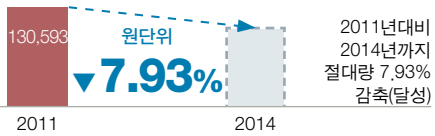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KB금융지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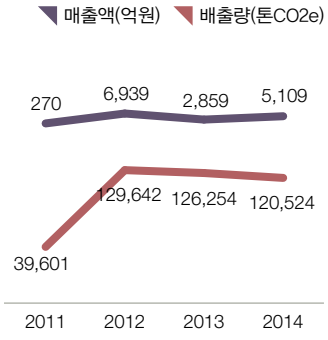


2011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7.93%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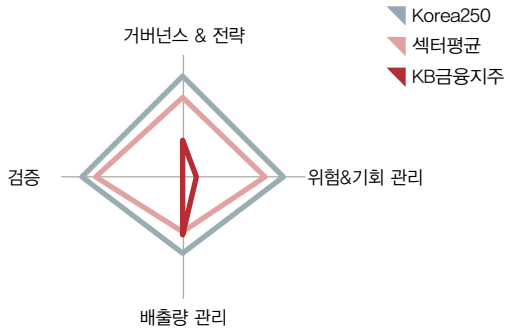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신한금융그룹

2010년 신한금융그룹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녹색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녹색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주사와 그룹 내 6개 계열사(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캐피탈, BNP파리바자산운용)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을 포함한 총 12개의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동절기 냉난방 온도조절, LED 조명 교체, 친환경 IT제품 구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 LED조명, 용수 재활용 시설, 빙축열 시스템 등을 갖춘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산업재

응답률

39% (18/4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대한한공, (주)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제일모직,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KCC, 현대중공업, LG하우시스, SK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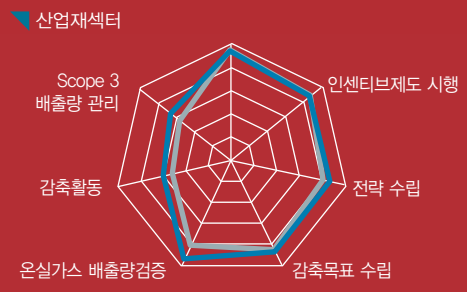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아이에스동서, 한화테크윈, (주)한진,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CJ대한통운, GS건설,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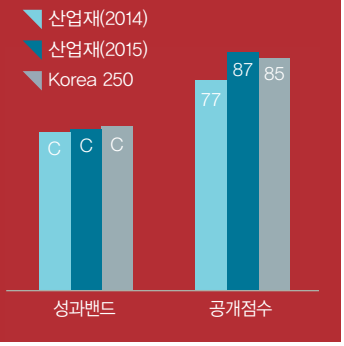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산업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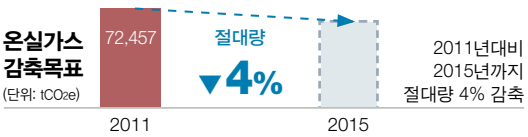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현대글로비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한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항공, 아이에스동서, 한국항공우주, (주)한진, 한화테크윈,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CJ, 대한통운, SK네트웍스

대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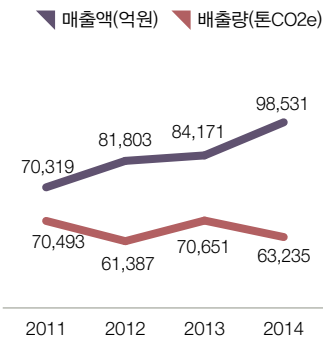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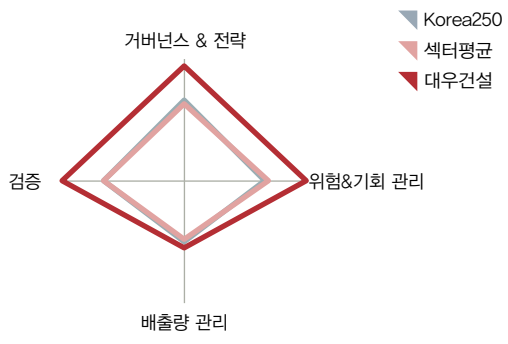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설)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3.2%	5.3%	7.1%
2014년 대비 감축률	0.0%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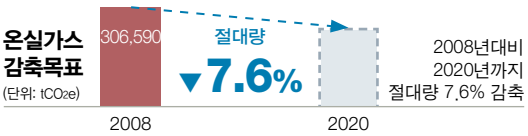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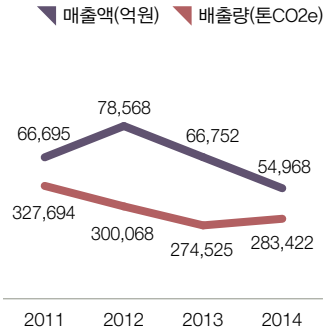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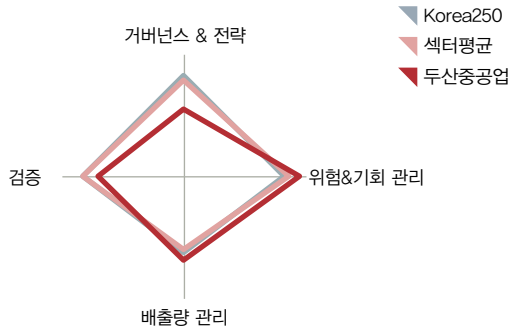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기계)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2%	2.3%	7.6%
2014년 대비 감축률	▲0.9%	▲2.6%	0.0%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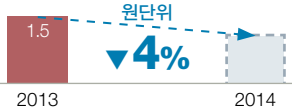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물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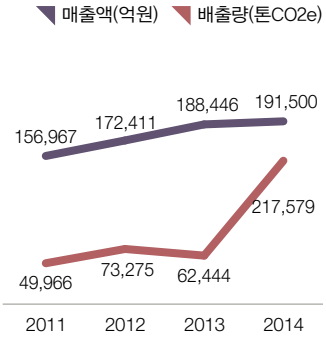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4% (S1&2&3, 절대량환산 4%)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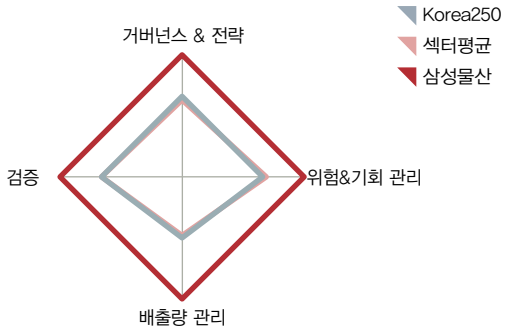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설)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3.2%	5.3%	7.1%
2014년 대비 감축률	0.0%	▲4%	▲12%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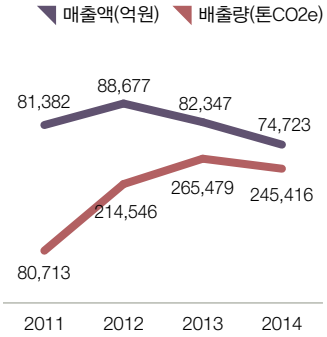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2012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20% (절대량환산 23%)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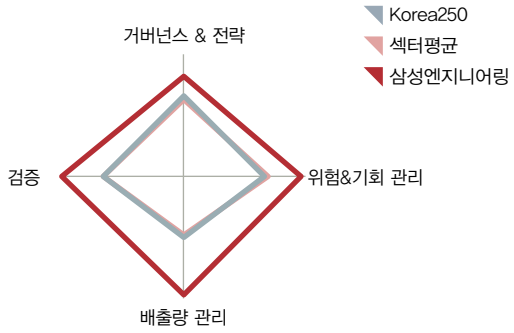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설)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3.2%	5.3%	7.1%
2014년 대비 감축률	0.0%	▲4%	▲12%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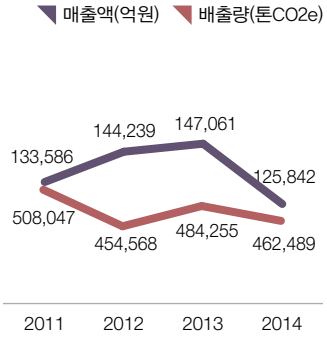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2009년대비 2015년까지 절대량 10%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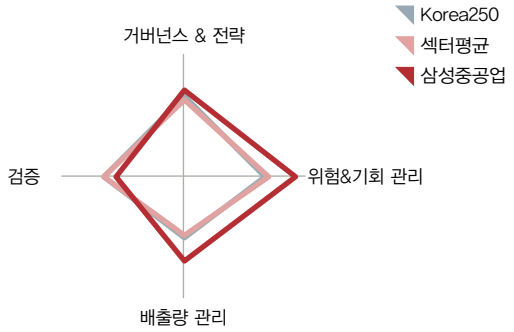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조선)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3%	2.3%	6.7%
2014년 대비 감축률	▲3.6%	▲10.7%	▲21.4%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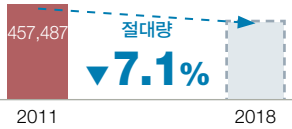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건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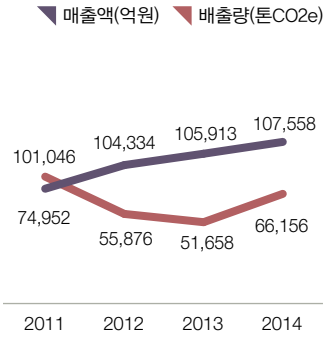


2011년대비 2018년까지 절대량 7.1% (S1&2&3)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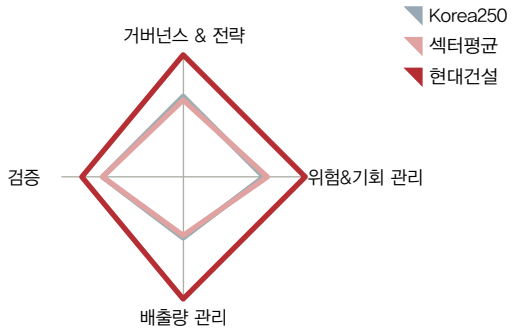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설)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3.2%	5.3%	7.1%
2014년 대비 감축률	0.0%	▲4%	12%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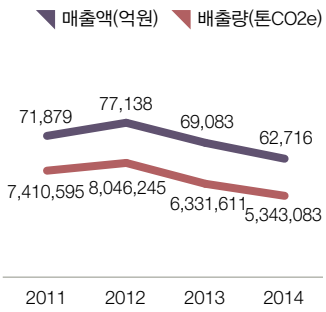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TEU-KM)

2008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50% (S1 57%, 절대량환산 15.6%)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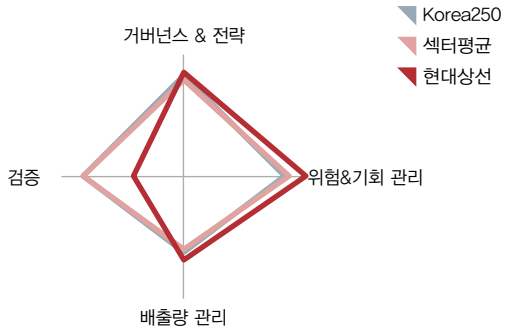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수송)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9.6%	16.2%	34.3%
2014년 대비 감축률	3.3%	9.1%	27.2%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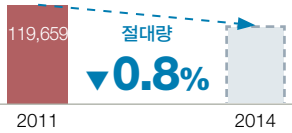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GS건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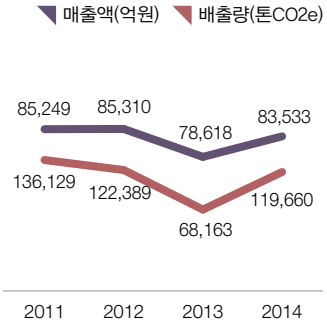


2011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0.8%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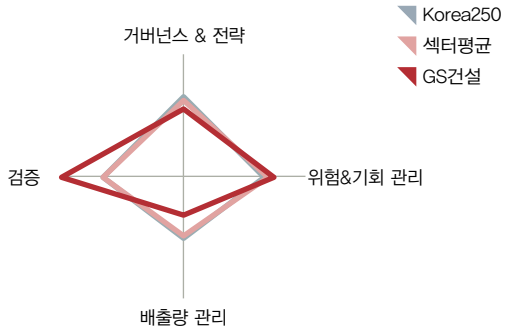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설)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3.2%	5.3%	7.1%
2014년 대비 감축률	0.0%	▲4%	▲12%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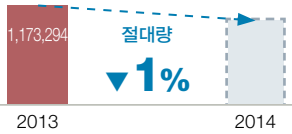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KCC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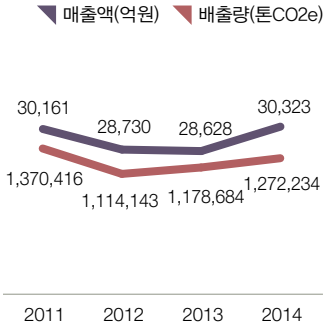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1%감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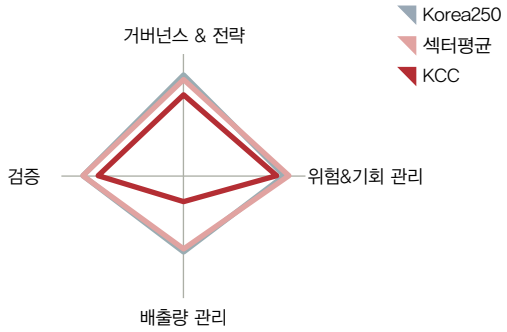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요업)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0.7%	1.3%	4.0%
2014년 대비 감축률	0.0%	0.0%	2.0%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주)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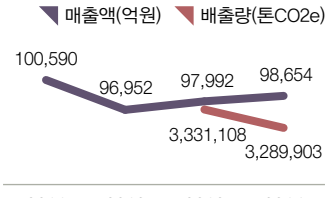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BAU 대비 202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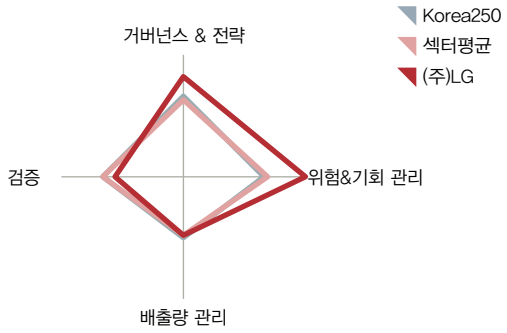
ETS 업종별(기타제조)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0.3%	0.5%	1.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1.2%	3.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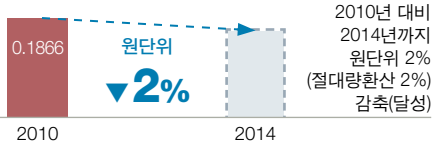
* 배출량: ㈜LG를 포함한 16개 그룹사(㈜LG,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생명과학, LG MMA, LG전자, LG실트론, LG유플러스, LG CNS, LUSEM, 서브원, LG ERI, LG , LG솔라에너지, G2R 그룹)의 배출량을 지분율 비율로 산정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S산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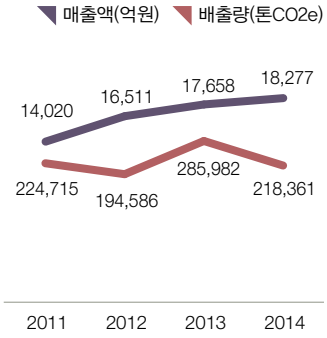


2010년 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2% (절대량환산 2%)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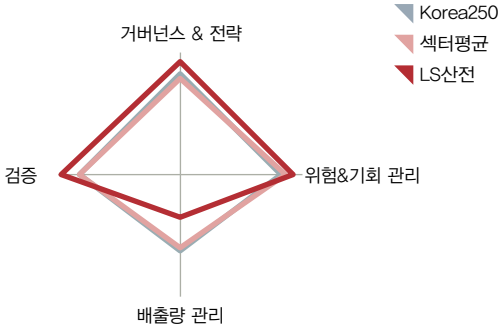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전기전자)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4%/45.4%	2.4%/60.8%	7.6%/83.9%
2014년 대비 감축률	▲0.9%/39.7%	▲0.9%/55.6%	3.6%/81.3%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UNFCCC Post-2020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올해 12월 열리는 COP21에 앞서 각국 정부는 UNFCCC에 자국의 감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파리협상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안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국가별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는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올해 6월 2030년 BAU기준 37% 감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제출한 이번 감축안은 기존에 선언한 감축목표(2020년 BAU대비 30% 감축, 1990년 대비 84% 증가)에 비해 후퇴한 안으로 평가된다.

각국 정부의 INDC를 분석한 Climate Action Tracker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며 한국이 제출한 감축안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2도 이하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inadequate)고 평가하였다.

기존에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적극성을 나타내어온 EU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도 기존보다는 적극적인 감축의지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2005년 대비 GDP 원단위 60-65% 감축안을, 미국은 코펜하겐에서 공언한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감축)보다 높은 2005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26%의 감축안을 제출하였다. CAT는 중국과 미국의 감축안을 모두 보통(medium)수준으로 평가하였다.

EU와 더불어 G2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보다는 진일보한 감축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양국으로부터 한국의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가 UNFCCC 제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현황

국가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연도 배출량*	1990년 대비*	CAT 평가**
한국	2030 BAU	2030	37%	536$MtCO_2e$	▲ 81%	불충분
미국	2005	2025	26%-28%	4,307 – 4,682 $MtCO_2e$	▼ 14% – ▼ 19%	보통
유럽	1990	2030	최소 40%	3376 $MtCO_2e$	▼ 40%	보통
일본	2013	2030	26%	1079 $MtCO_2e$	▼ 13%	불충분
호주	2005	2030	26%-28%	445-458 $MtCO_2e$	▼ 4.9% – ▲ 5.4%	불충분
중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2030년까지 GDP대비 원단위 2005년 기준 60 – 65% 감축					보통

출처: UNFCCC, Climate Action Tracker
*LULUCF 미포함
** 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된 결과. 국가별 평가결과 확인 http://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html

선택소비재

응답률

19% (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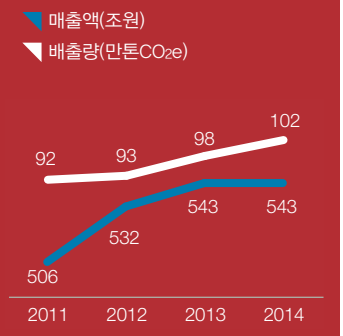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강원랜드,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도레이케미칼, 롯데쇼핑, 만도, 세방전지, 신세계, 쌍용자동차, 한국타이어, 한라비스테온공조,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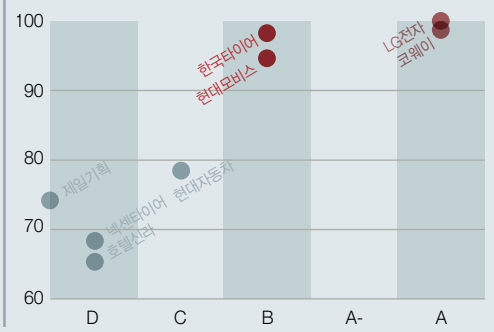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조광피혁, 현대모비스,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S&T모티브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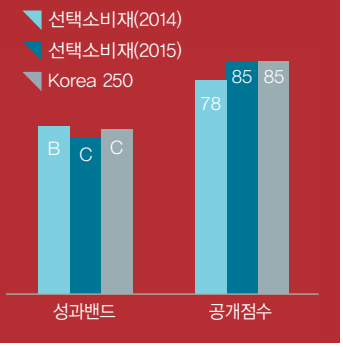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금융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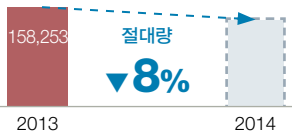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강원랜드, 한라비스테온공조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강원랜드,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만도, 도레이케미칼, 롯데쇼핑, 세방전지, 신세계, 쌍용자동차, 조광피혁, 한라비스테온공조, 현대백화점,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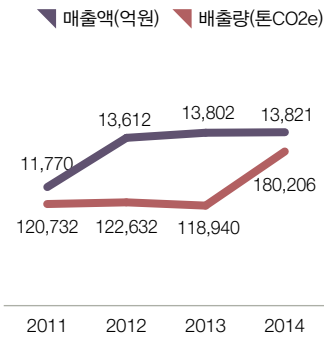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8%감축 (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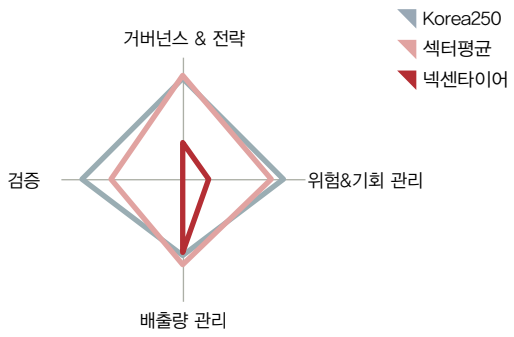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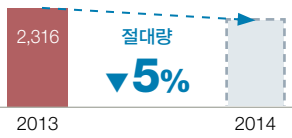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제일기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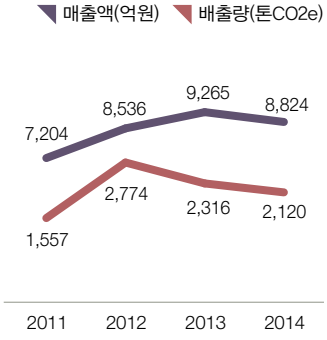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5%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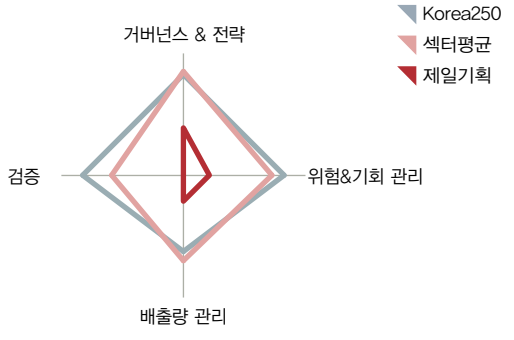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코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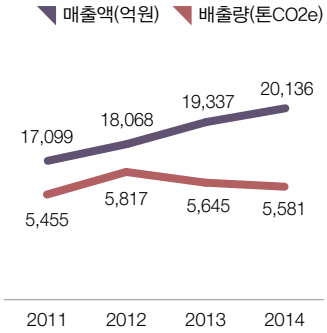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2010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50% (절대량환산 1%)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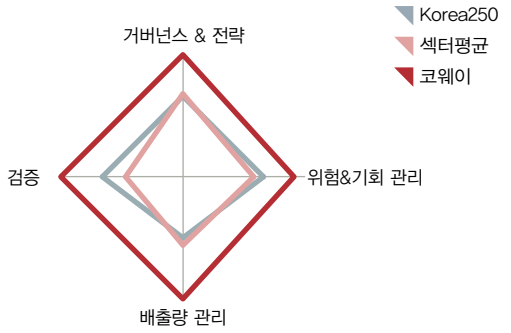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기타제조)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0.3%	0.5%	1.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1.2%	3.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국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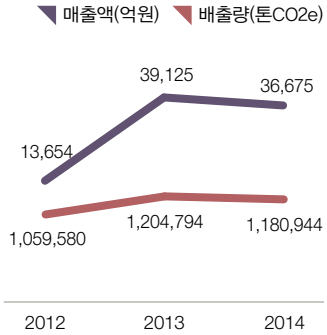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제품(톤))

2012년대비 2017년까지 원단위 5% (절대량환산 23.26% 증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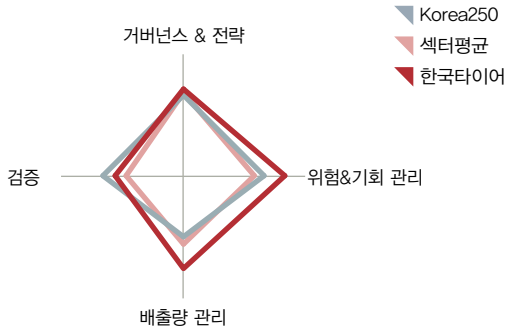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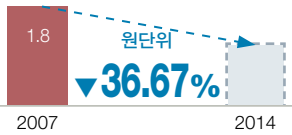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모비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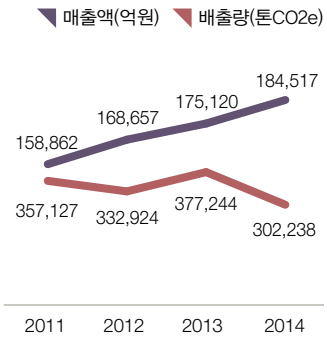
2007년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36.67% (절대량환산 61.25% 증가) 감축(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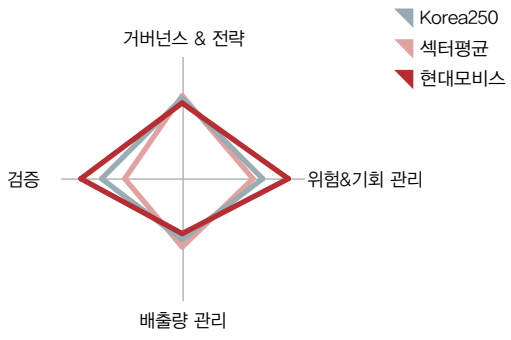
ETS 업종별(자동차)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3%/50%	2.4%/66%	7.8%/90%
2014년 대비 감축률	▲1.3%/▼43.3%	▲2.6%/▼60%	1.3%/86.7%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자동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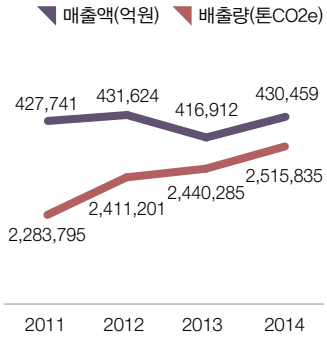
2010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10% (절대량환산 2%)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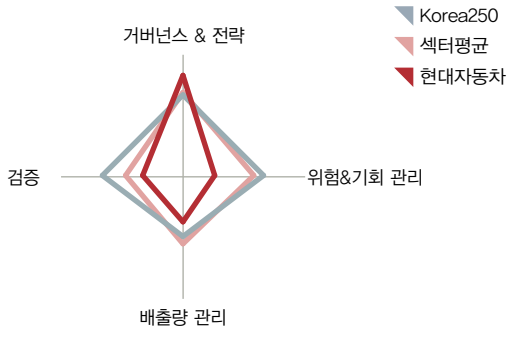
ETS 업종별(자동차)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3%/50%	2.4%/66%	7.8%/90%
2014년 대비 감축률	▲1.3%/▼43.3%	▲2.6%/▼60%	1.3%/86.7%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G전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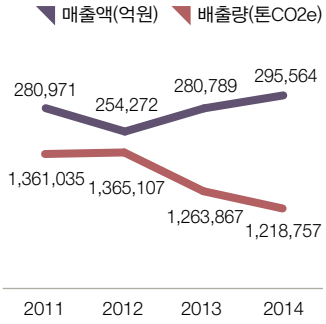
2008년대비
2020년까지
절대량 10.3%
(S1&2 95%)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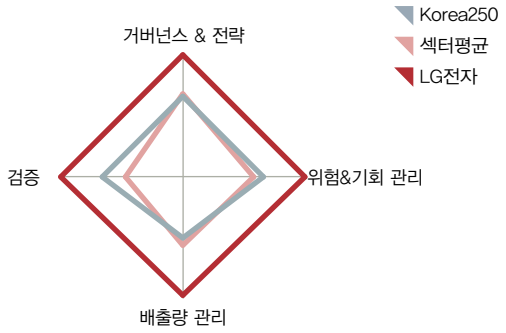
ETS 업종별(전기전자)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4%/45.4%	2.4%/60.8%	7.6%/83.9%
2014년 대비 감축률	▲0.9%/39.7%	▲0.9%/55.6%	3.6%/81.3%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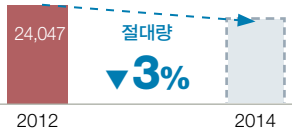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호텔신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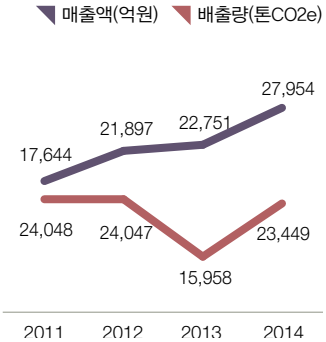
2012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3%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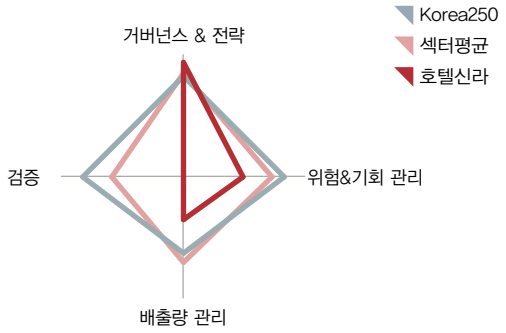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8.8%	17.5%	26.7%
2014년 대비 감축률	0.0%	5.3%	9.8%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자발적 참여기업

CDP Korea 25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5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CDP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자사의 기후변화정보를 CDP를 통해 공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올해에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심텍, 한국동서발전, 한화그룹은 4년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CDP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영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CDP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한화그룹은 한화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CDP를 통하여 비상장계열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CDP를 그룹의 기후변화대응 플랫폼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철도공사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 리더십을 보여, CDP 한국위원회에서 제정한 2015년도 CDP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기업명
1	대덕전자
2	심텍
3	한국동서발전
4	한국철도공사
5	한영산업
6	한화그룹

LG 전자

LG전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그린사업장 조성, 소비자 사용단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신제품 확대 및 그린 신사업 강화 등 3대 그린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공장 내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며, 나아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창원1공장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서 '2015년 에너지스타 어워드(2015 ENERGY STAR Award)'의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Sustained Excellence)'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내에서 전개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4회 연속 '2015년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G전자는 고효율 태양광 제품에서 전기자동차 부품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은 N타입 웨이퍼를 적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은 6형대(15.67㎝) 기준 19.5%의 효율로 320W 출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사업에 진출하여 구동모터, 인버터 및 급속충전 통신모듈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원자재

응답률

34% (11/3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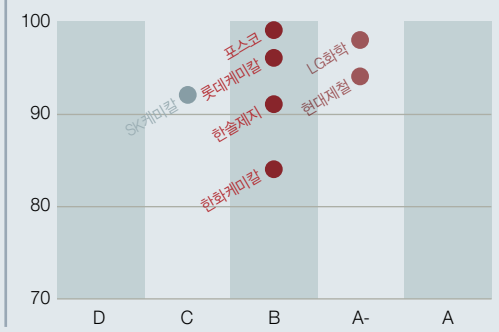
고려아연, 고려제강,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삼성정밀화학,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쌍용양회, 영풍,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포스코, 포스코켐텍, 풍산, 한솔제지, 한일시멘트, (주)한화,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효성, 휴켐스, LG화학, OCI머티리얼즈, OCI㈜, SKC, SK케미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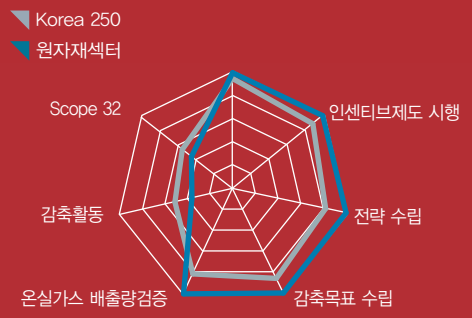
–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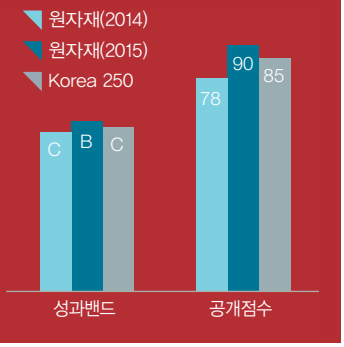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원자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SK이노베이션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고려아연, 고려제강,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쌍용양회, 영풍,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휴켐스, 포스코켐텍, 한일시멘트, OCI㈜, SKC, OCI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제품(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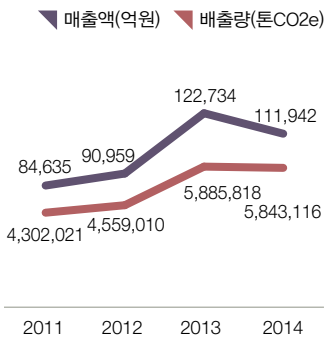
2009년대비 2018년까지 원단위 30% (절대량환산 42.8%)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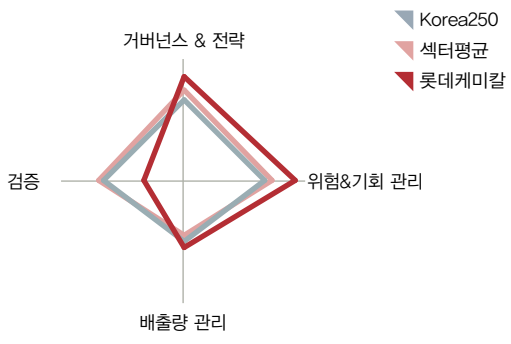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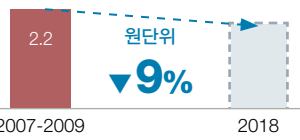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조강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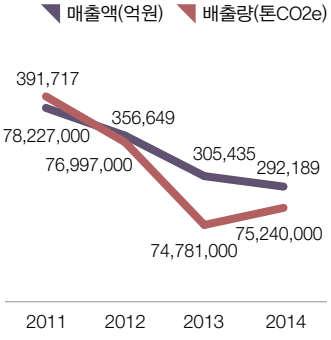
2007-2009년 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9% (절대량환산 9%)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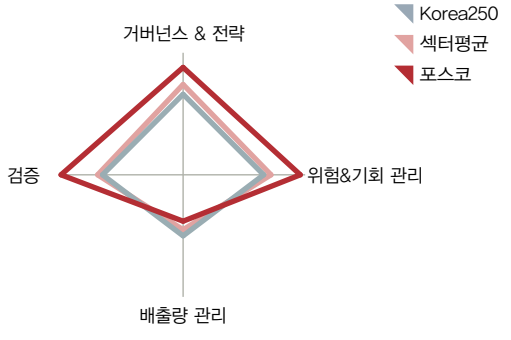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철강)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1%	3.7%	6.5%
2014년 대비 감축률	▲2.3%	▲1.3%	0.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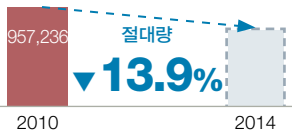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솔제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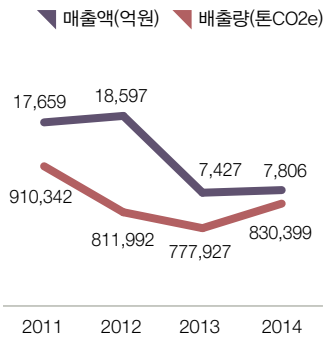


2010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13.9% 감축(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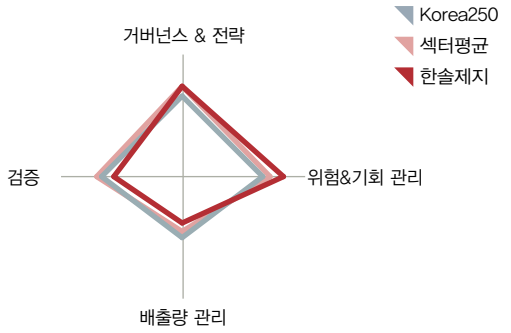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제지목재)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4%	4.1%	7.1%
2014년 대비 감축률	2.6%	6.4%	12.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화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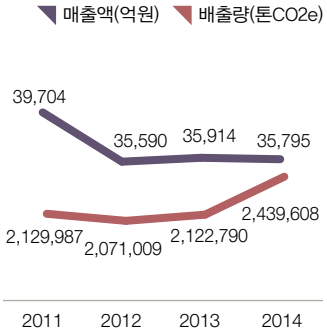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제품(톤))

2010년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10% (절대량환산 10%)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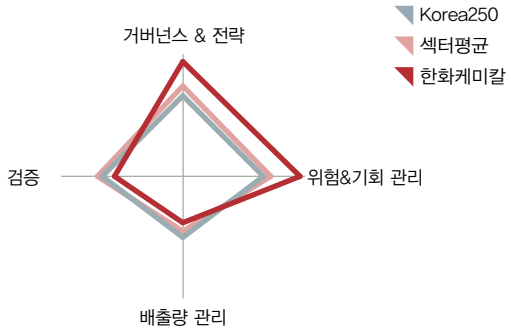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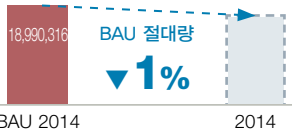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현대제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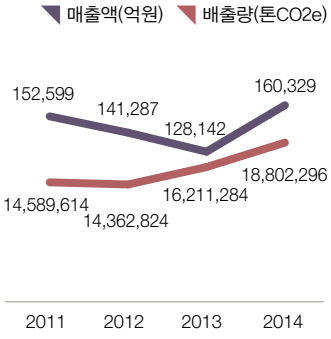


BAU 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1%감축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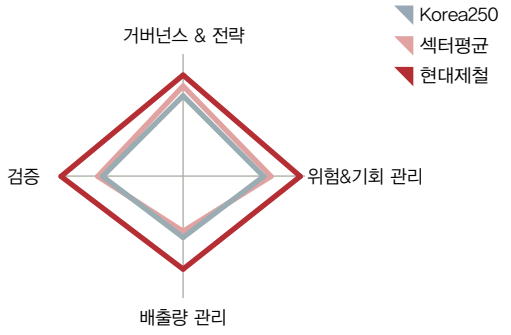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철강)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1%	3.7%	6.5%
2014년 대비 감축률	▲2.3%	▲1.3%	0.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G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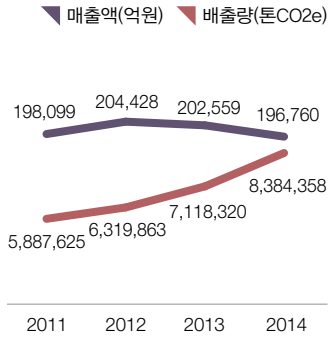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제품(톤))

2008년대비 2015년까지 원단위 11.1% (S1&2 94% 절대량환산 11.1%)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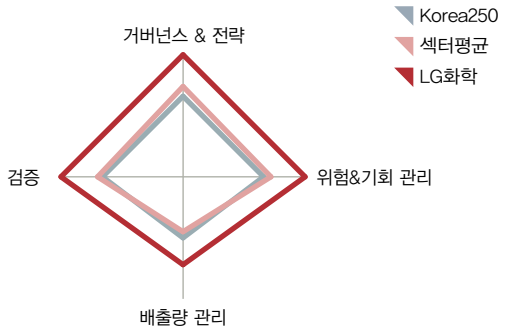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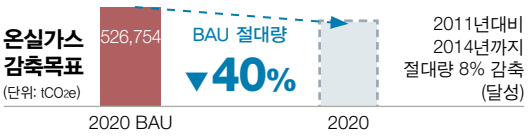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SK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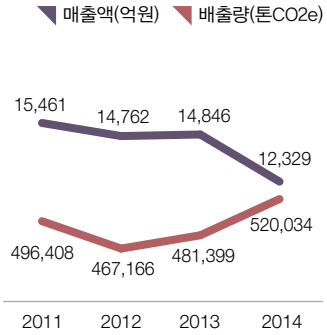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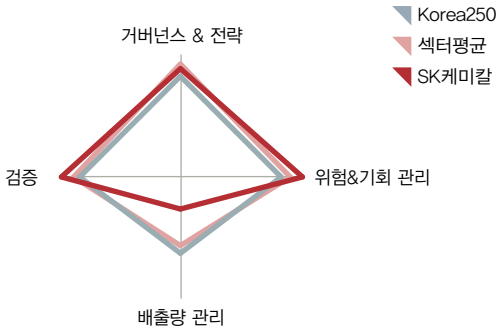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국기업의 기후변화국제협약 지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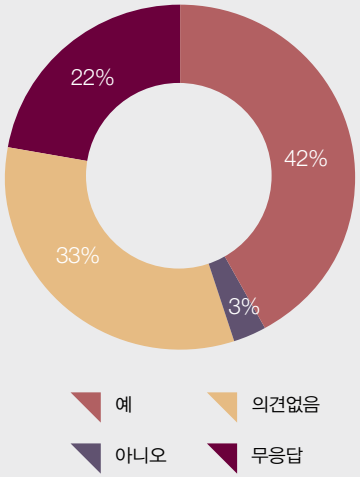
신기후변화체제를 결정하는 파리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산업계에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UN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CDP는 올해 CDP 질의서를 통해 각 기업의 UN기후변화협약 지지여부를 물었다. 이 문항에 한국기업의 42%는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3%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기업은 의견이 없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섹터별로는 응답기업이 한 군데에 불과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선택소비재 섹터의 협약 지지율이 70%(7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유틸리티 섹터의 67%(2개), 통신섹터의 50%(2), 필수소비재섹터의 50%(3개)가 기후변화 협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LG그룹과 SK그룹 CDP 대상기업 중 30%가 UN기후변화 협약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포스코 그룹에서 UN기후변화 협약을 지지한다고 보고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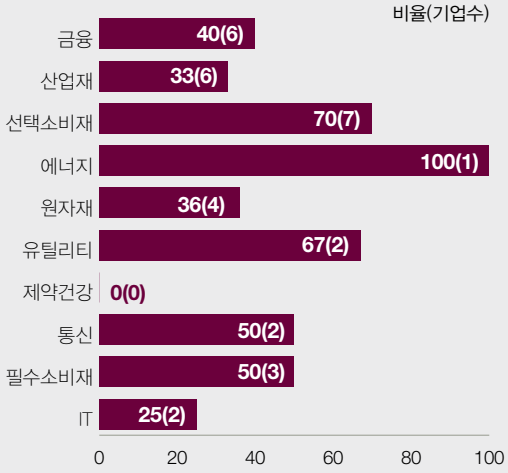
기후변화 국제협약 지지기업 비율



UN기후변화 협약 지지 그룹사

그룹명	지지기업 비율	지지기업 수 / 대상기업 수
LG	30%	3 / 10
SK	30%	3 / 10
삼성	25%	4 / 16
한화	25%	1 / 4
현대자동차	22%	2 / 9
롯데	17%	1 / 6
CJ	14%	1 / 7
포스코	0%	0 / 4

섹터별 UN기후변화 협약 지지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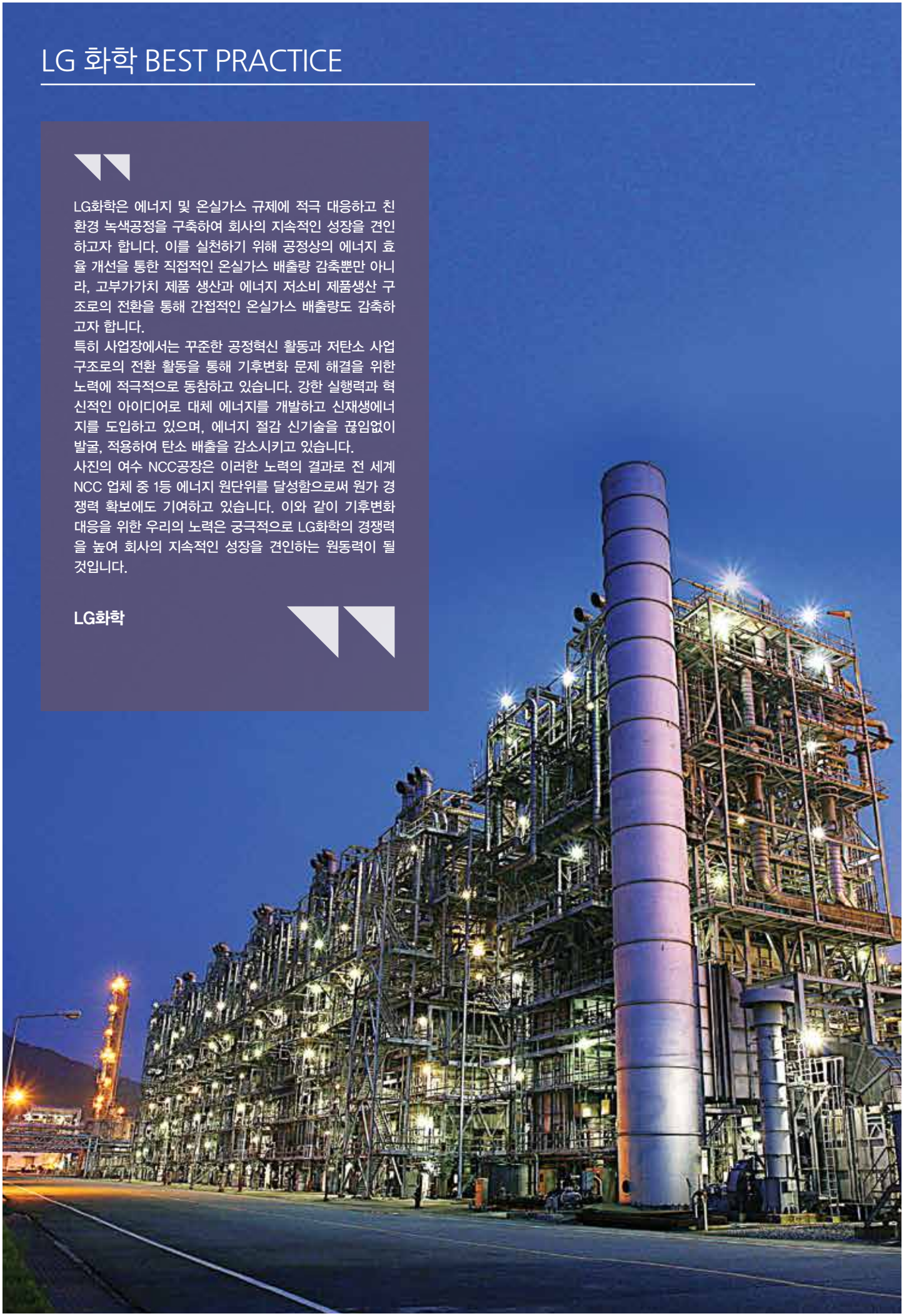
LG 화학 BEST PRACTICE

LG화학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공정을 구축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에너지 저소비 제품생산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꾸준한 공정혁신 활동과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한 실행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끊임없이 발굴,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의 여수 NCC공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 NCC 업체 중 1등 에너지 원단위를 달성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LG화학의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LG화학



유틸리티

응답률

6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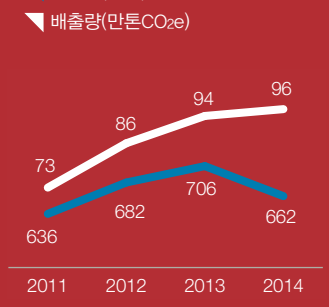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삼천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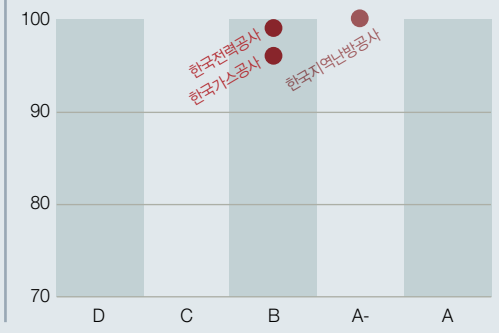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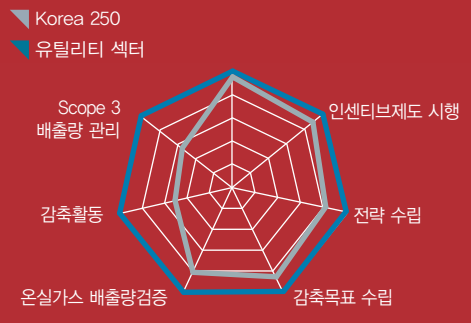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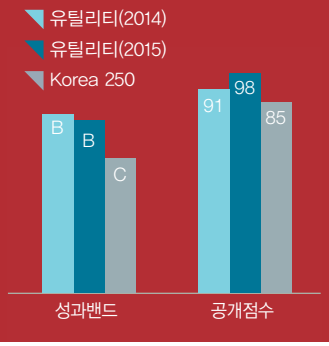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에너지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삼천리

한국가스공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682,644 → 절대량 ▼0% (2013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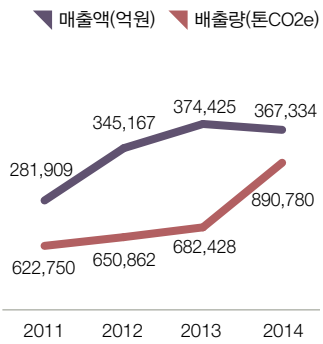
2014년까지 2013년 배출량 유지(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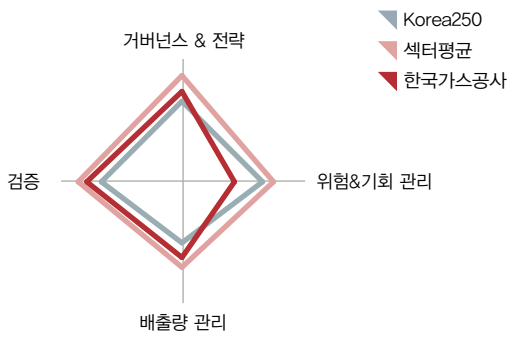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전환)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6.1%	10.9%	26.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국전력공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2,641,564 → 절대량 ▼30.7% (2009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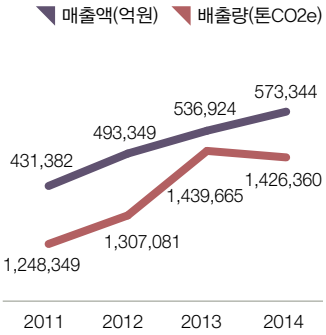
2009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30.7% 감축(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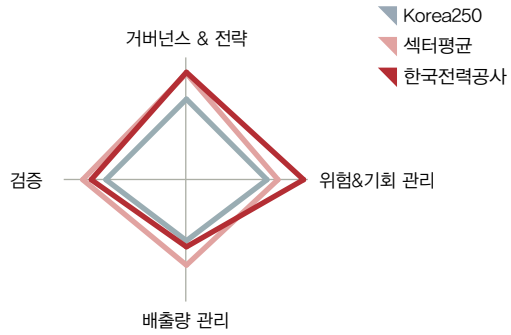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전환)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6.1%	10.9%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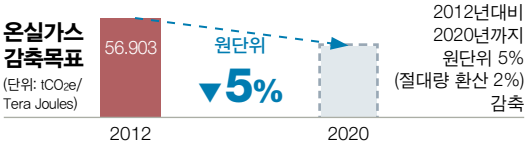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한국지역난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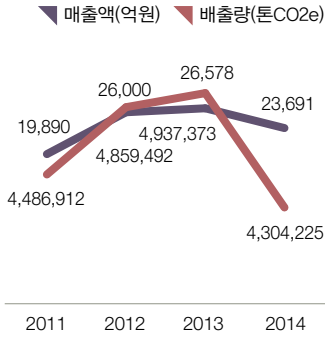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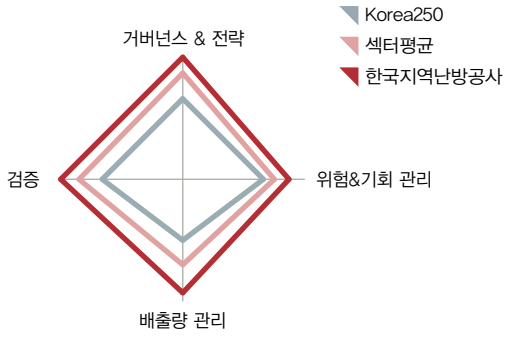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전환)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6.1%	10.9%	26.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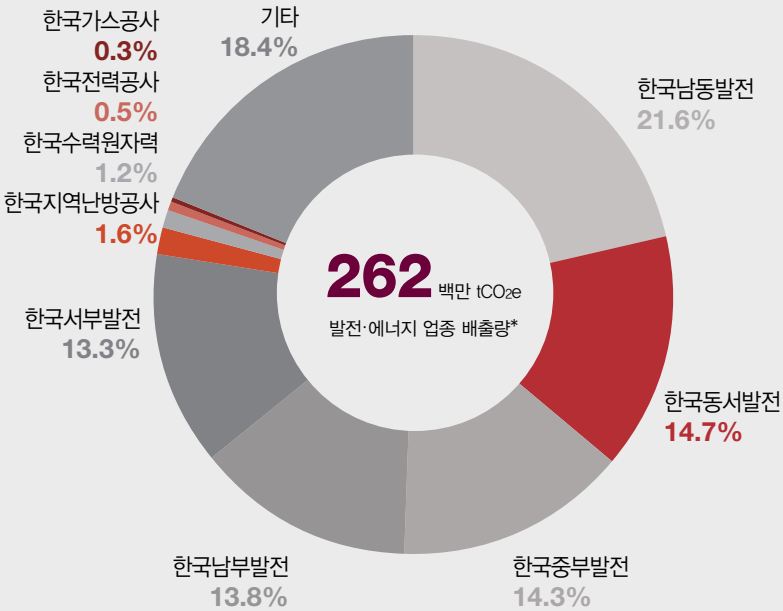


발전 에너지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비중 및 정보공개 책임성

발전·에너지 업종의 ETS 할당량 비중

43.6%

발전에너지 업종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비율



* 2013 목표관리제 기준

발전·에너지 업종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로 2014년 목표관리제 기준으로 2억 6천 2백만t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의 43.6%가 배분되었다.

하지만 발전·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후변화관련 정보 및 경영 수준에 대한 정보공개는 다른 섹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CDP 2015 응답기업은 4개(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불과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한전발전자회사 가운데서는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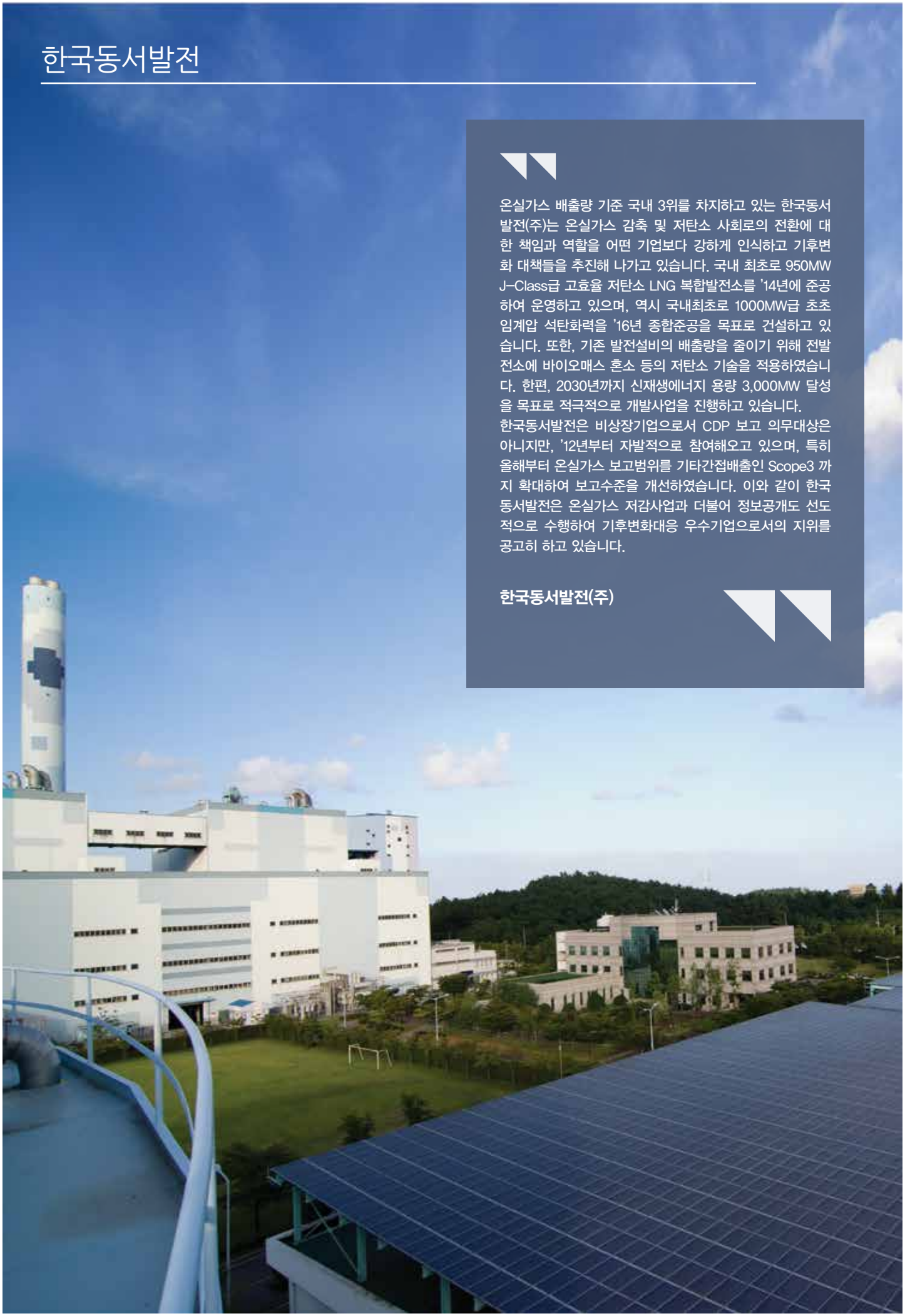
전력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이에 대한 관리는 발전사 자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국민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발전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CDP는 2014년부터 발전·에너지 샘플을 도입하여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CDP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전 및 에너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전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발전/에너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한국동서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주)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어떤 기업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950MW J-Class급 고효율 저탄소 LNG 복합발전소를 '14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국내최초로 1000MW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을 '16년 종합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발전설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발전소에 바이오매스 혼소 등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 3,000MW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비상장기업으로서 CDP 보고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12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온실가스 보고범위를 기타간접배출인 Scope3 까지 확대하여 보고수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동서발전은 온실가스 저감사업과 더불어 정보공개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



통신

응답률

10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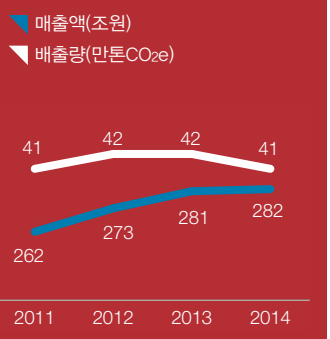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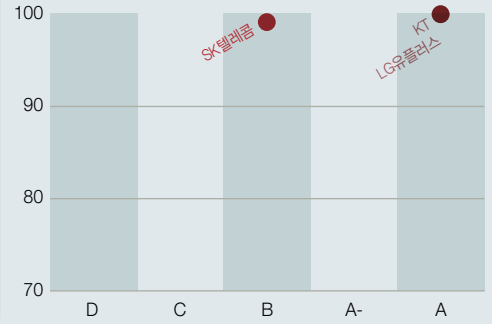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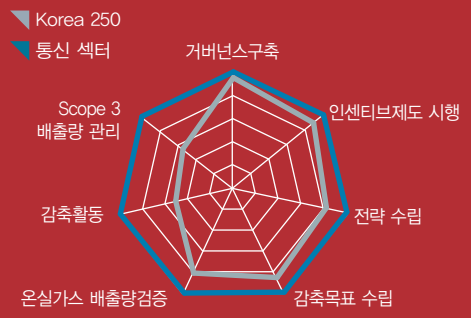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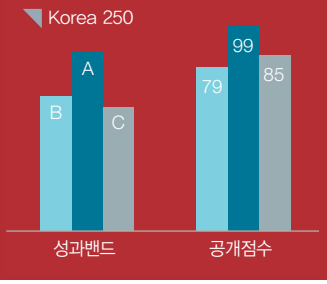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원자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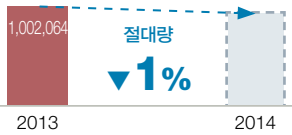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

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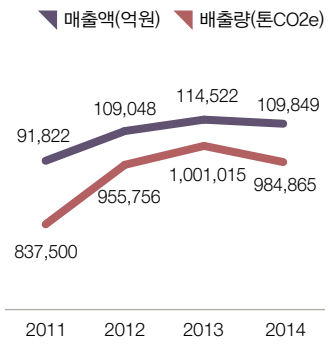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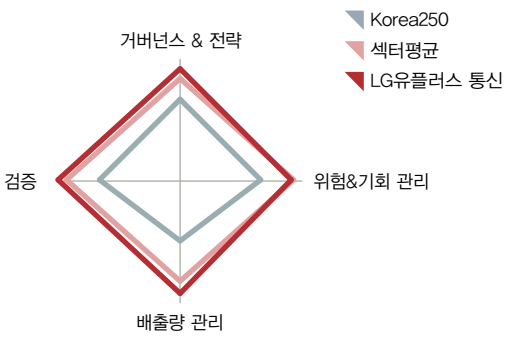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1% 감축(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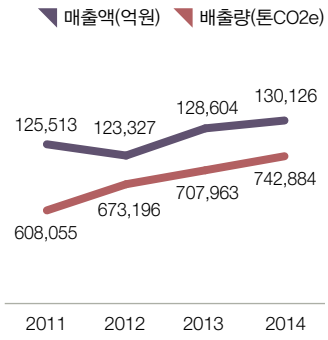
SK텔레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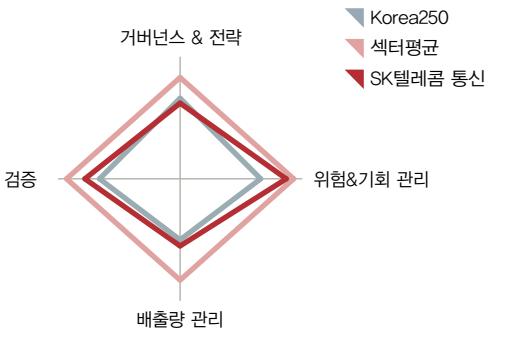
2010년대비 2020년까지 절대량 15%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인터뷰 황창규 kt회장

kt, 친환경 Global No.1 기업 되겠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은 "환경적 책임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측면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호에 탑승해 있는 모든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이런 기업은 리더십을 발휘한다.

kt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이슈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200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2009년 수립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사 광역화를 통한 Simple Network 구현, 외기 도입을 통한 냉방 전력절감, 저전력 통신장비 도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kt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07년 대비 14.7% 감축하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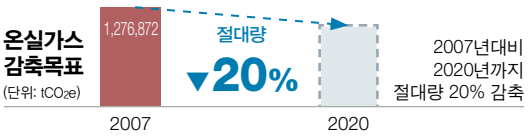
또한,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화 된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kt의 세계적인 친환경 경영 수준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Ⅲ) 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kt는 Scope Ⅲ 배출량을 ①공급망 단계(협력사 온실가스 배출량), ②사용단계(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기타(직원 출장, 출퇴근, 용수사용, 폐기물 등으로 인한 배출량), 3대 분야로 구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kt의 Scope Ⅲ 배출량 관리는 국내 기업들의 Scope Ⅲ 관리의 모범을 제공했고, 이는 전세계적인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kt의 활동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EO의 강력한 의지가 전사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 비전과 거버넌스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t는 2015년 CDP에서 성과 평과 A밴드를 받아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3년 연속 편입된 동시에 올해 전세계 114개 기업만 편입된 A List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통신사 중 톱 클래스다.

황창규 회장은 "kt는 Global No. 1 kt 비전 아래 친환경 경영에서도 글로벌 1등 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환경경영 역량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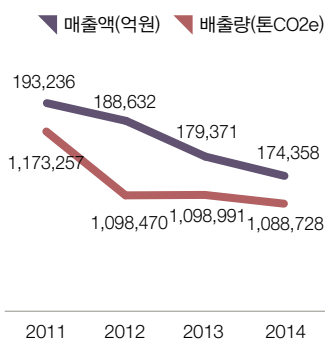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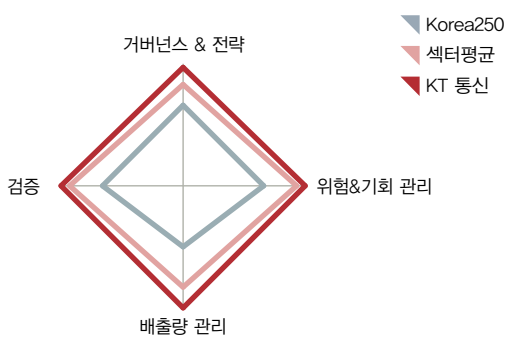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KT

KT는 'Global No.1 kt' 비전 아래 Global 최고 수준의 친환경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사내 에너지 절감은 물론 나아가 ICT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T의 환경경영 주요 이슈는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전략 및 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에너지, 서비스, 구매, 대외, 자원 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적 관점에서 환경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KT는 '20년까지 '0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을 자체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년 기준으로 '07년 배출량 대비 14.7% 감축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통신장비의 저전력화, 냉방전력 최소화, 오피스 에너지 절감 등 전사 임직원의 끊임없는 에너지 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년부터 온실가스 관리 범위를 Scope 3(간접배출량)까지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KT는 5대 미래융합 서비스의 한 축으로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첨단 ICT를 융합한 스마트에너지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Gi-GAtopia'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kt-MEG(Micro Energy Grid)를 구축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

필수소비재

응답률

21%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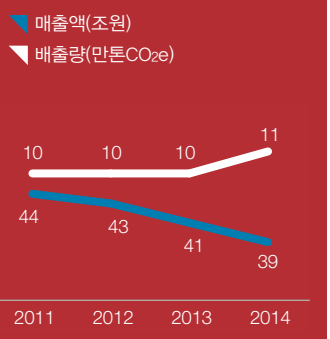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남양유업, 농심, 대상, 롯데제과, 롯데칠성, 매일유업, 삼립식품, 삼양사, 오뚜기, 오리온, 이마트,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 K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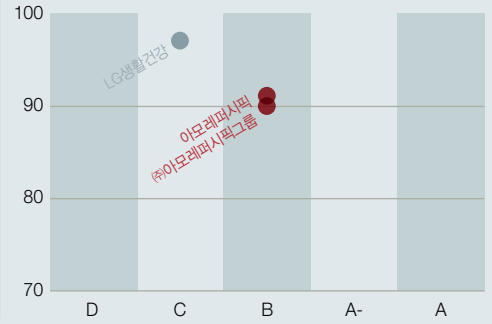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동원F&B, 빙그레, 오뚜기, 오리온, LG생활건강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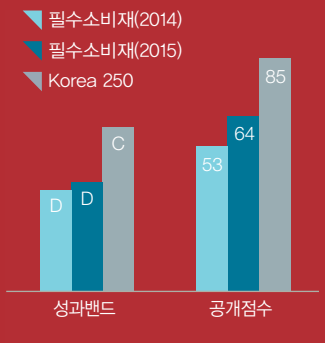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필수소비재 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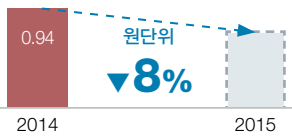
KT&G, 이마트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원F&B, 롯데제과, 롯데칠성, 매일유업, 빙그레, 삼립식품, 삼양사, 오뚜기, 이마트, 하이트진로, KT&G

아모레퍼시픽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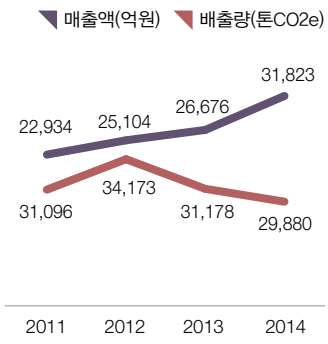
2014년대비 2015년까지 원단위 8% (절대량환산 8%)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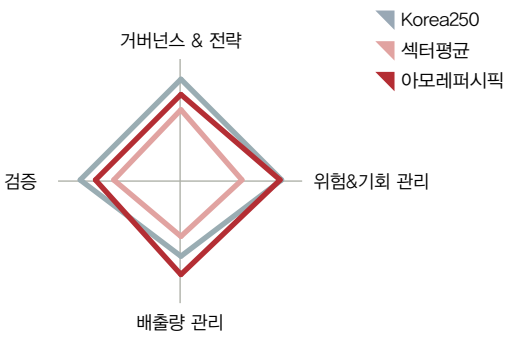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아모레퍼시픽그룹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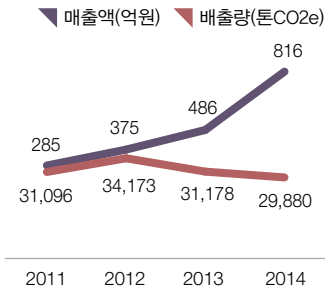
2010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30% (절대량환산 310% 증가)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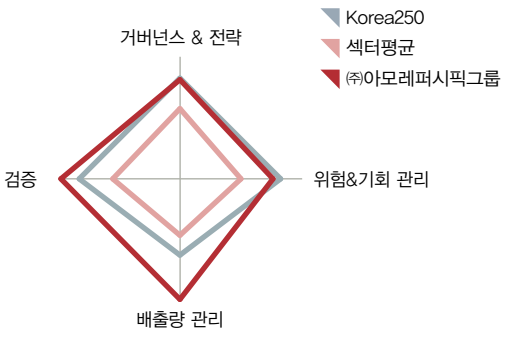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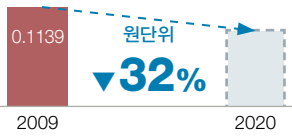
*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로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G생활건강 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제품(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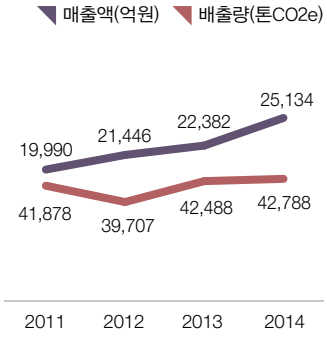


2009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32% (절대량환산 4.8%증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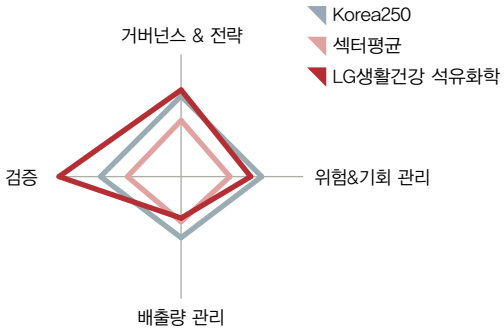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석유화학)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WE MEAN BUSINESS

CDP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끌어 내고, 기업의 이러한 목소리를 UN기후변화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세계은행, UNEP, CERES, WBCSD 등과 함께 WE MEAN BUSINESS를 조직하여 기업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214개 기업과 115개 금융기관이 '기후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 설정', '내부탄소가격 도입' 등 7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가 단순히 경제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저탄소 전략이 기업이나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에 기후변화에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WE MEAN BUSINESS의 7개 이니셔티브 중 DGB 금융지주가 유일하게 주류재무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보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CDP를 통한 정보 공개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국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기업도 기후변화 관련 국제 무대에서 보다 활발한 리더십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니셔티브

NAZCA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뿐만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 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UNFCCC는 CDP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비정부 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부 조직의 이러한 감축의지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UNFCCC의 NAZCA(The 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웹페이지에는 1157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공개되어 있다.

NAZCA 웹사이트

응답률

30%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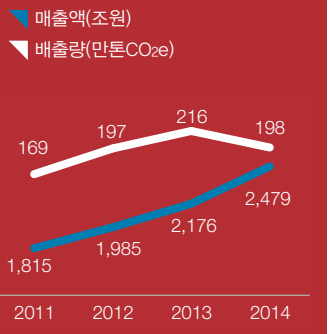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SK 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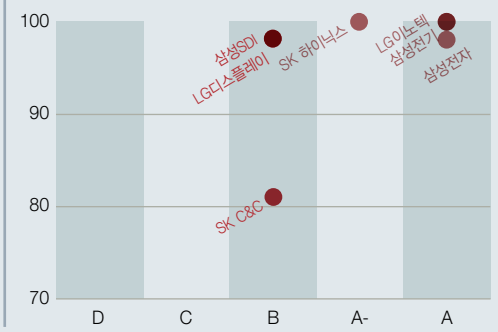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서울반도체, Naver, SK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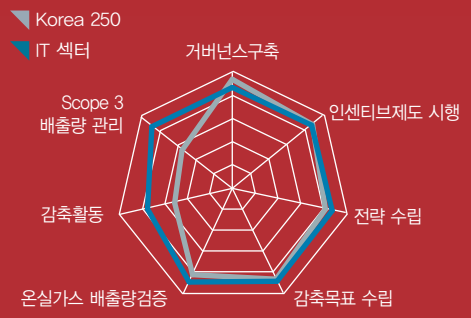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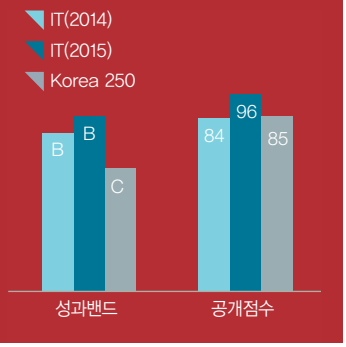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원자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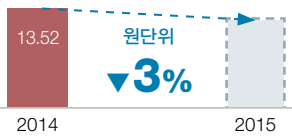
삼성SDS, Naver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삼성SDS, Naver, 서울반도체

삼성SDI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매출액(억원))



2014년대비 2015년까지 원단위 3% (절대량환산 6%)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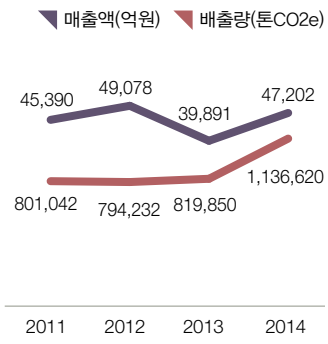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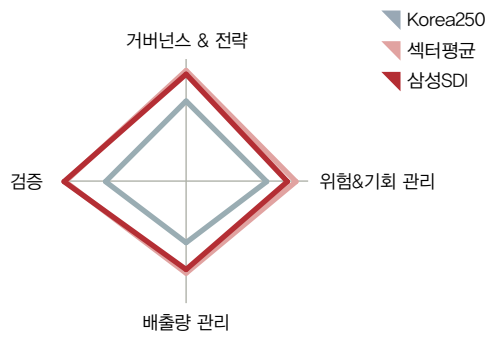
ETS 업종별(전기전자)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4%/45.4%	2.4%/60.8%	7.6%/83.9%
2014년 대비 감축률	▲0.9%/39.7%	▲0.9%/55.6%	3.6%/81.3%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전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매출액(억원))

2008년대비 2015년까지 원단위 30% (절대량환산 79%증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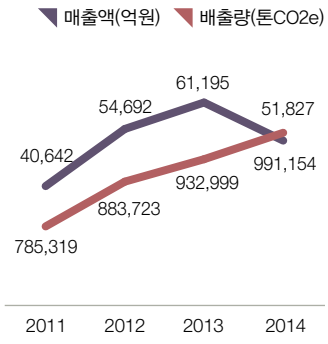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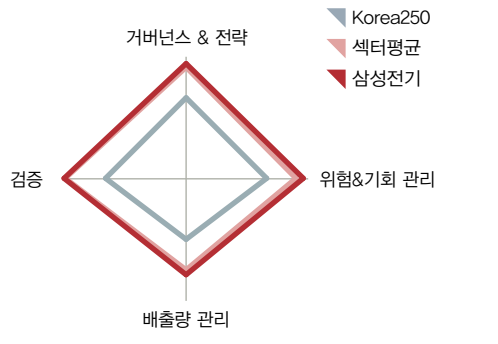
ETS 업종별(전기전자)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4%/45.4%	2.4%/60.8%	7.6%/83.9%
2014년 대비 감축률	▲0.9%/39.7%	▲0.9%/55.6%	3.6%/81.3%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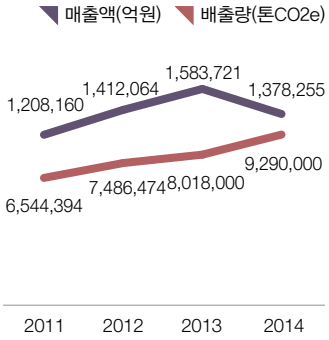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2008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70% (절대량환산 3.2%)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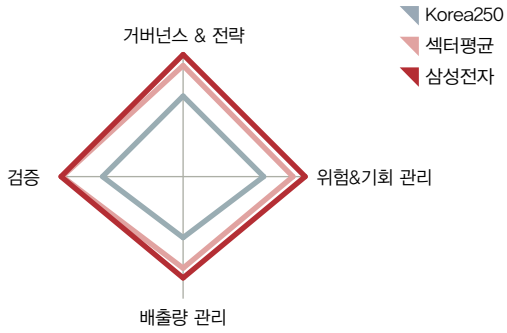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반도체)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7.3%	20.6%	27.7%
2014년 대비 감축률	10.2%	6.5%	4.6%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G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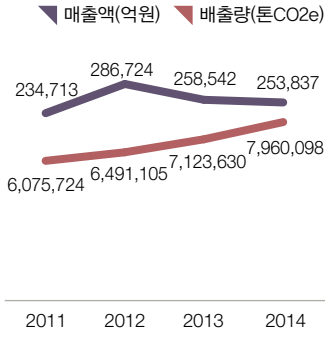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매출액(억원))

2009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29% (절대량환산 149% 증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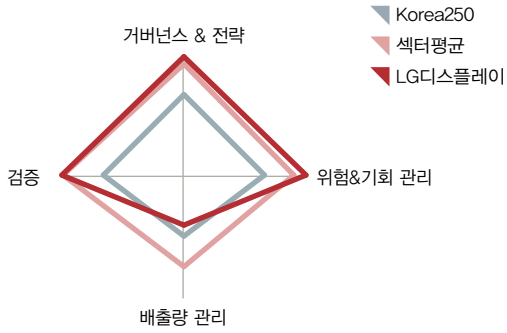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디스플레이)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6.3%	30.9%	39.5%
2014년 대비 감축률	3.2%	▲35%	▲95.4%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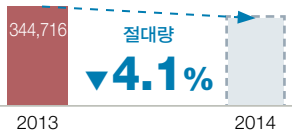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LG이노텍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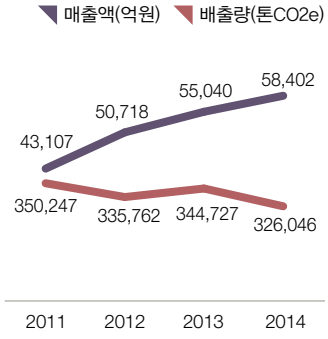
2013년대비 2014년까지 절대량 4.1% 감축(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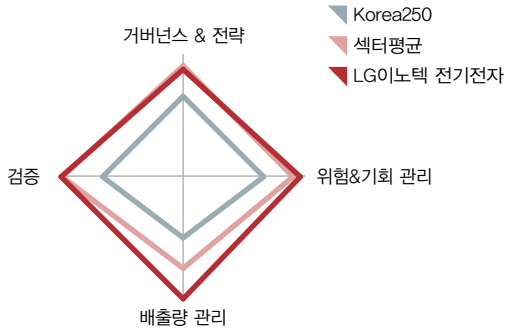
ETS 업종별(전기전자)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4%/45.4%	2.4%/60.8%	7.6%/83.9%
2014년 대비 감축률	▲0.9%/39.7%	▲0.9%/55.6%	3.6%/81.3%

(에너지/비에너지)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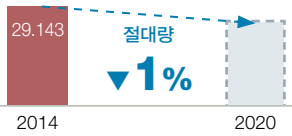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SK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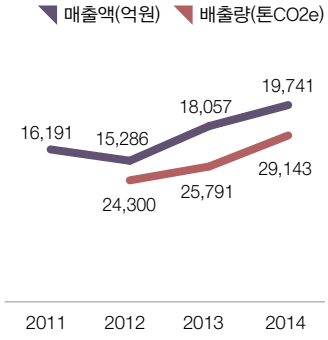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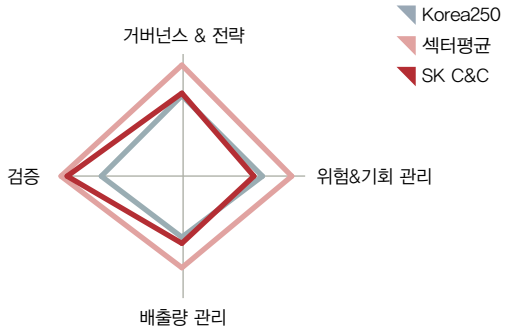
2014년대비 2020년까지 절대량 1% 감축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인터뷰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

저탄소 시대를 이끄는 책임 있는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 되겠다

SK하이닉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온실가스·에너지 저감활동, 탄소라벨링 확대, 친환경·에너지효율적인 제품개발, 대내외 기후변화 인식 확산이라는 카테고리로 진행해 왔다.

온실가스·에너지 저감활동을 위하여 SK하이닉스는 공정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고효율기기 적용을 통한 전력사용 절감,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실시, 물류배송 최적화, 제품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팀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냉각탑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하여 클린룸 난방에 필요한 스팀을 대체하는 등 공정과정에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재활용해 환경영향을 저감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2014년에는 12.1만톤의 스팀 사용량을 감축했으며 8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사용량이 큰 여름철 냉동기를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해 1.7만MW 전력사용량을 감축해 17.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 각종 시장적·비시장적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고객들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저전력·친환경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선도적으로 획득하고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내사업장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비율은 54.1%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SK하이닉스는 '나부터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절전 실천행동 5계명'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경영 교육과 탄소경영 제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STOP CO_2 멘토링은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의 성과를 꾸준히 CDP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전세계 금융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5년 연속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거쳐 명예의 전당 3년 연속 Gold Club을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저탄소 시대를 이끄는 책임 있는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SK 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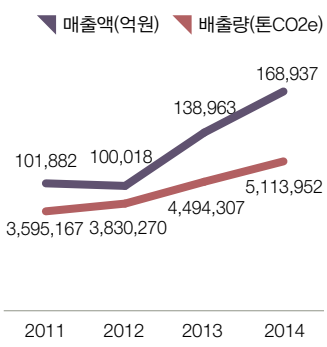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_2e/웨이퍼면적(m2))

2009년대비 2020년까지 원단위 50% (범위: 95.22%, 절대량환산 27.97%)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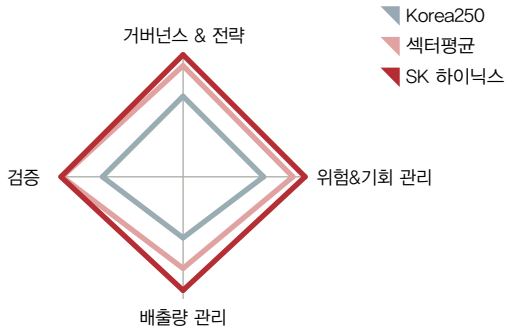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반도체)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17.3%	20.6%	27.7%
2014년 대비 감축률	10.2%	6.5%	4.6%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Share Dream with Eco-memory' 환경비전 아래, 자원순환 선도, 기후변화 선대응,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고효율·저전력·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하여 2015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 50% 감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Eco-efficiency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제품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물질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나노공정 도입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계획보다 1년 먼저 Factor 5.13 목표(2008년대비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과 가치가 5.13배 향상)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제품의 수요에 발맞추어, 저탄소 모바일 제품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09년 업계 최초로 제품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이후, 기존의 PC 및 서버용 DRAM과 NAND Flash 뿐만 아니라 성장세에 있는 모바일 DRAM 제품까지 저탄소 제품 인증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 기준 국내 사업장 탄소 성적표지 인증 제품 비율은 54.1% 입니다. 더불어 SK하이닉스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가치사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탄소경영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협력사 자재의 탄소성적 산출을 위한 에코디자인 교육 및 30개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배출량 감축 지표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응답률

2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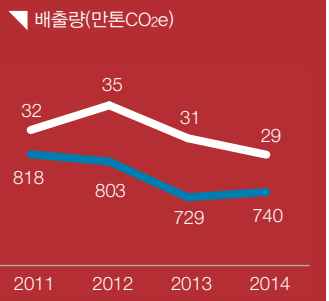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SK이노베이션, S-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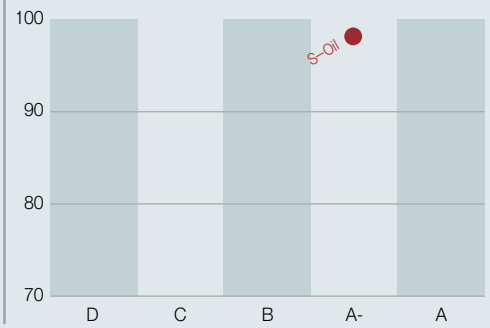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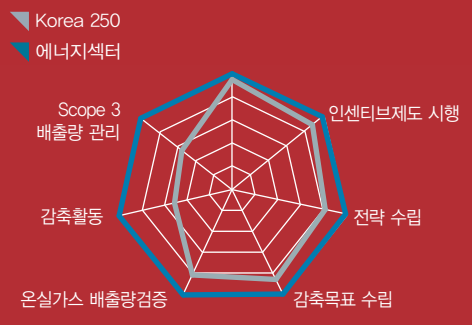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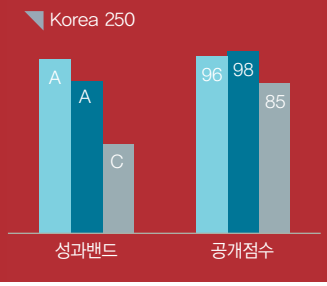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에너지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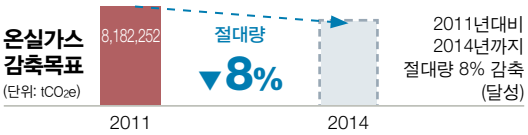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SK이노베이션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SK이노베이션

S-Oil 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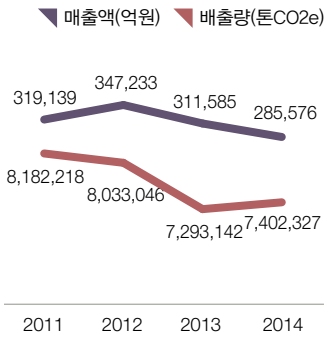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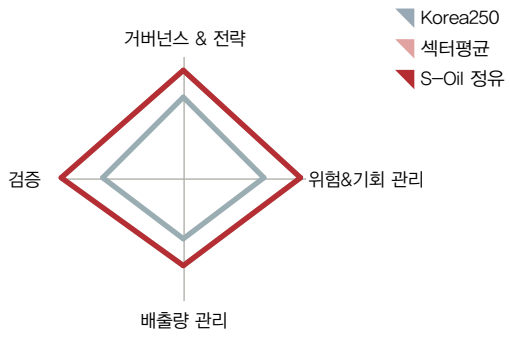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ETS 업종별(정유)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3.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6%	0.6%	3.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도입은 한국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및감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CDP 250개 대상기업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119개로 4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서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르렀다. 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CDP 대상기업의 응답률은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두 제도의 포함여부에 따라 기후변화 정보 공개 및 성과 수준에도 차이를 보였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의 대상인 54개 응답기업의 공개점수가 그렇지 않은 24개 응답기업보다 7점 높았으며, 성과점수는 9점 높았다.

반면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CDP에 꾸준히 참여하여 기후변화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업도 많았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코웨이, 삼성엔지니어링은 기후변화 성과가 가장 높은 그룹을 의미하는 A List에 포함되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limate A List (ETS/목표관리제 비대상)

코웨이
신한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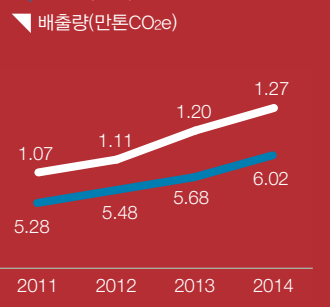
응답률

12%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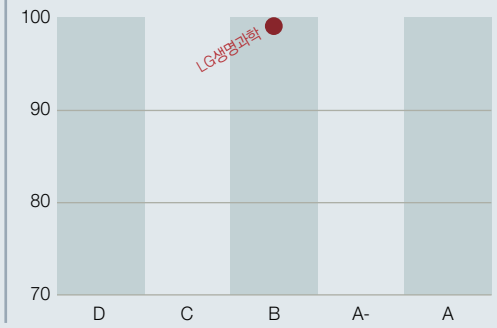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셀트리온, LG생명과학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녹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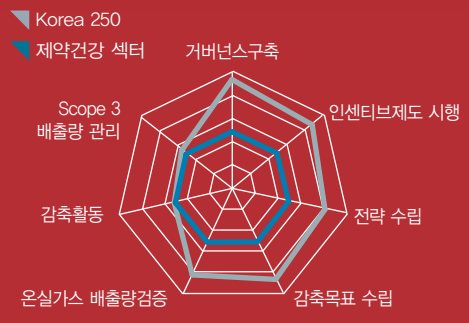
섹터 평균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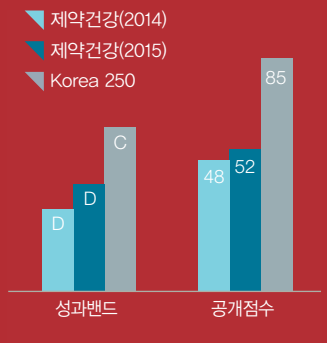
기업별 공개점수 & 성과밴드



원자재섹터 기후변화 대응 수준 분석



섹터 평균 성과밴드 & 공개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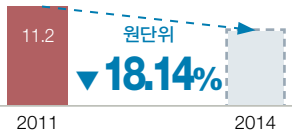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미응답 기업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중 미응답 기업 (시가총액 순)

셀트리온

LG생명과학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tCO2e/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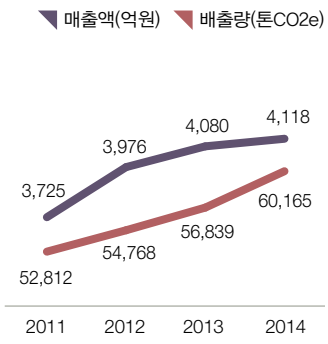
2011년대비 2014년까지 원단위 18.14% (절대량환산 25.27% 증가) 감축(달성)

Post-2020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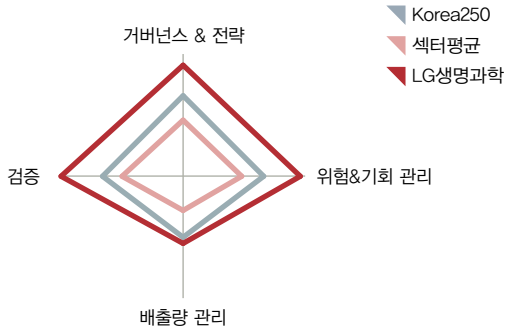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국내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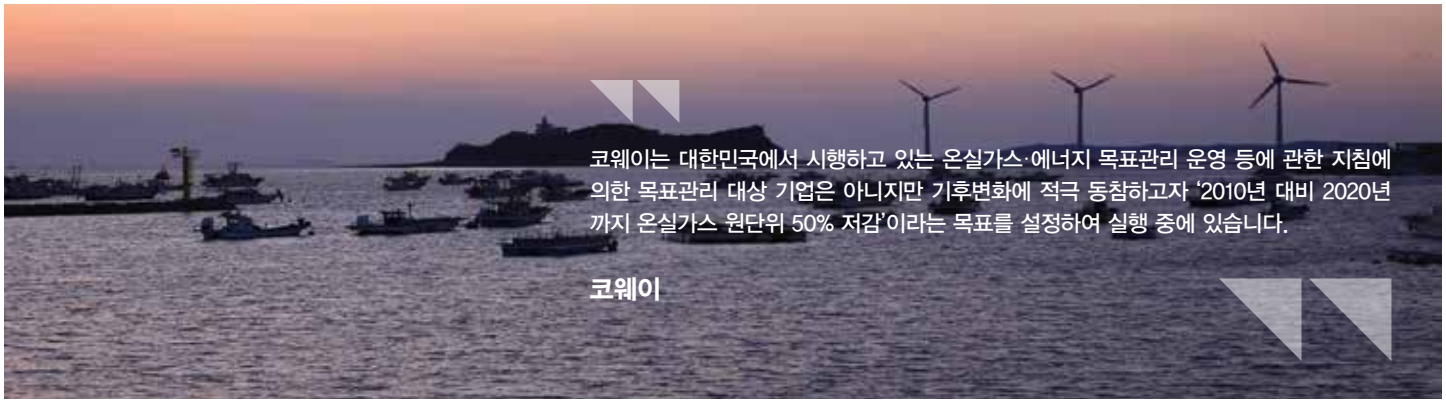
ETS 업종별(건물) 감축률	2015	2017	2020
BAU대비 감축률	2.8%	4.6%	7.5%
2014년 대비 감축률	0.4%	▲0.7%	▲1.8%

매출액 &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코웨이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목표관리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코웨이

정보공개 주요 통계

정보공개 주요 통계

CDP 2014 Korea 250응답기업은 총 78개이며, 이 가운데 KS1과 KS2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마감기한 이전에 제출한 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Scope1 또는 Scope2 배출량 공개 기업 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로 입력한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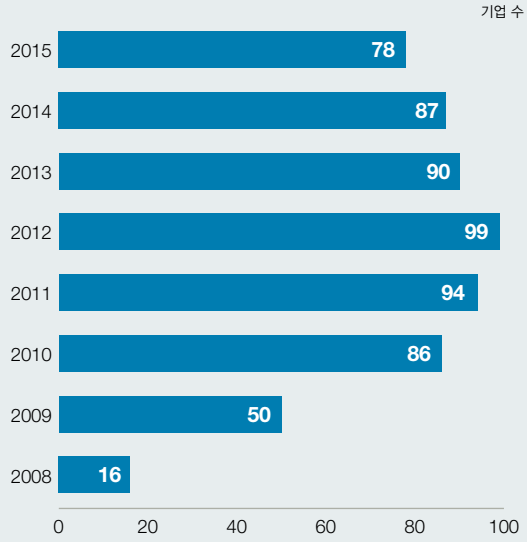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는 기후변화관련 정보의 기업 주류 보고서 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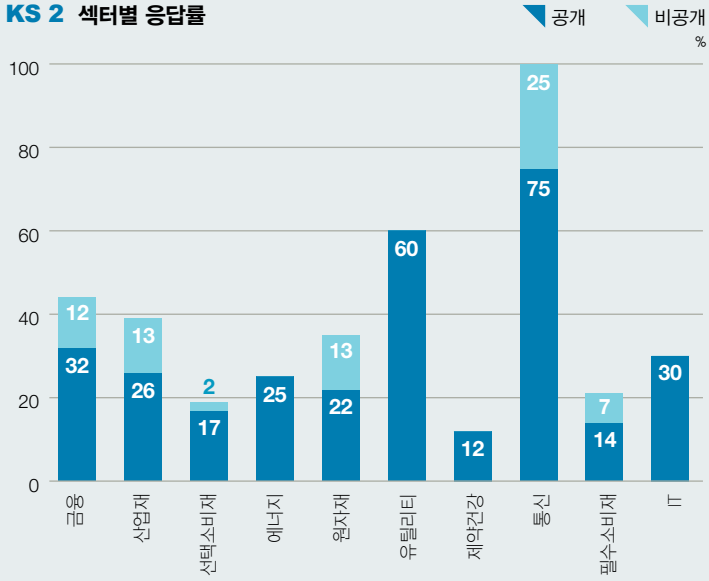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재무 보고서를 통해 공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CCRF는 기존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비재무보고서의 방법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의 원리를 기후변화 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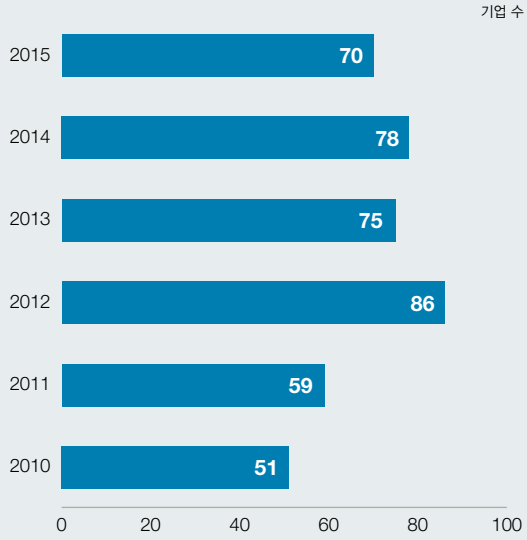
KS 1 CDP KOREA 250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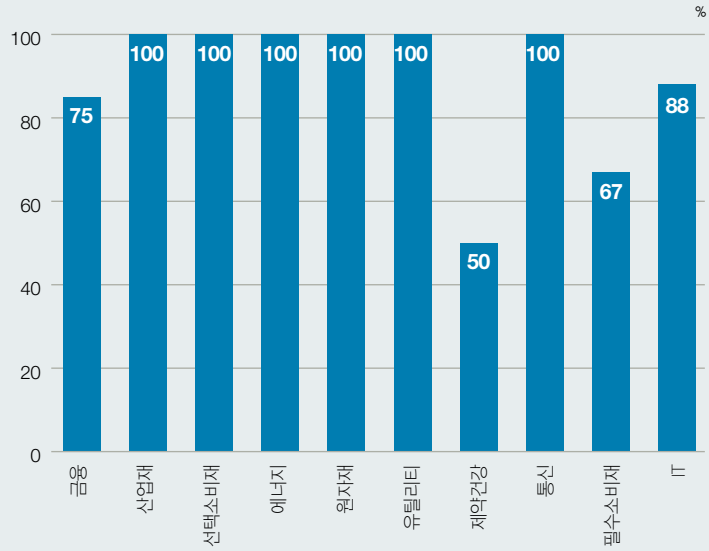
KS 2 섹터별 응답률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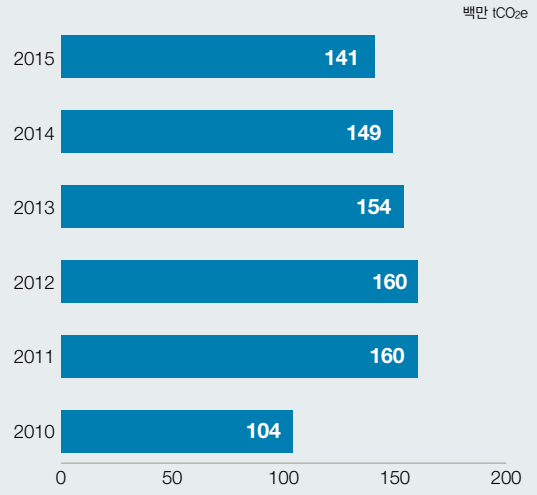
배출량 주요 통계

Scope 1, 2 배출량은 CDP 2013 대비 8백만 tCO_2e 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기업 수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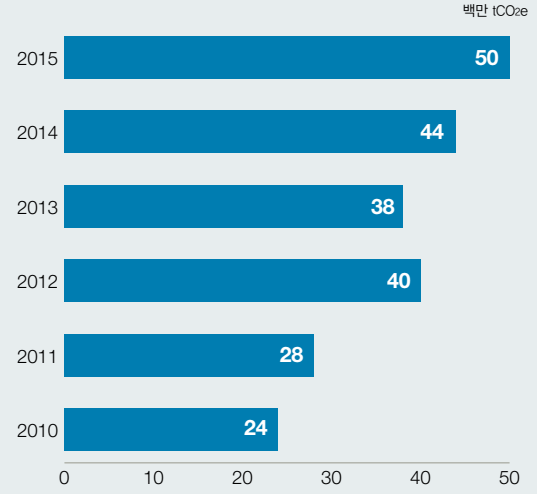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이상 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 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 또한 적절한 선택될 수 있으나, 이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증을 권장.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증/보증'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문건이 CDP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을 검증 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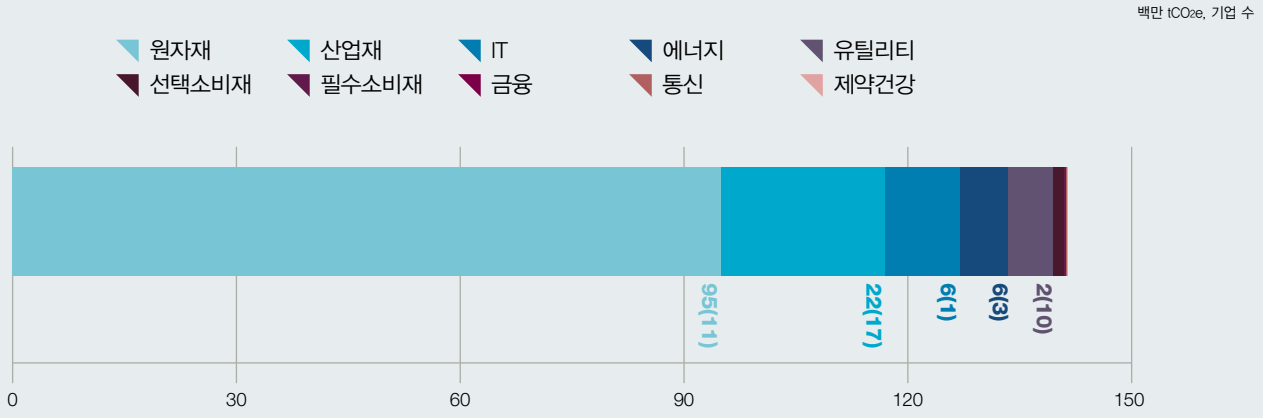
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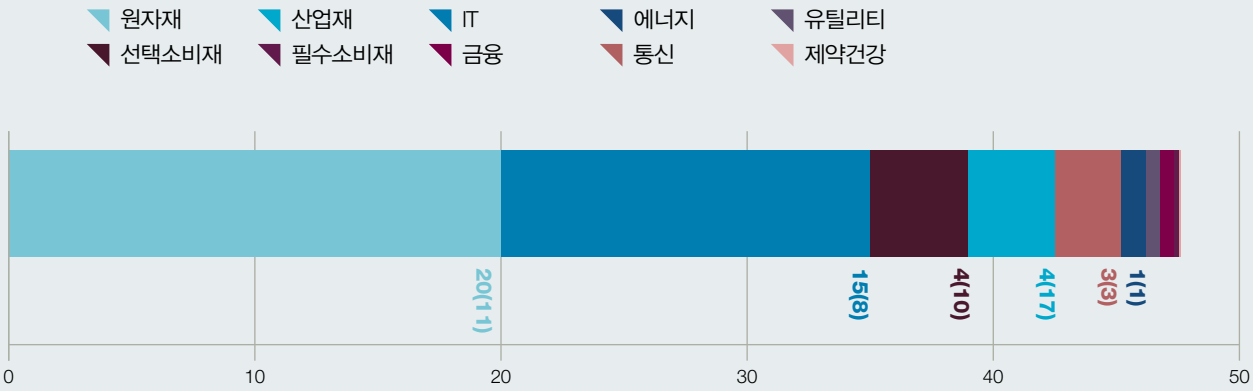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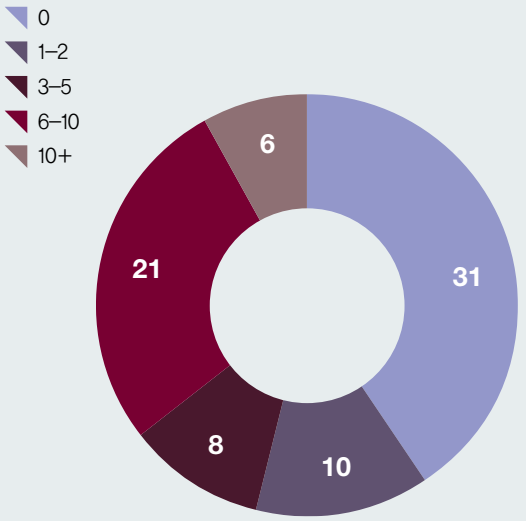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_2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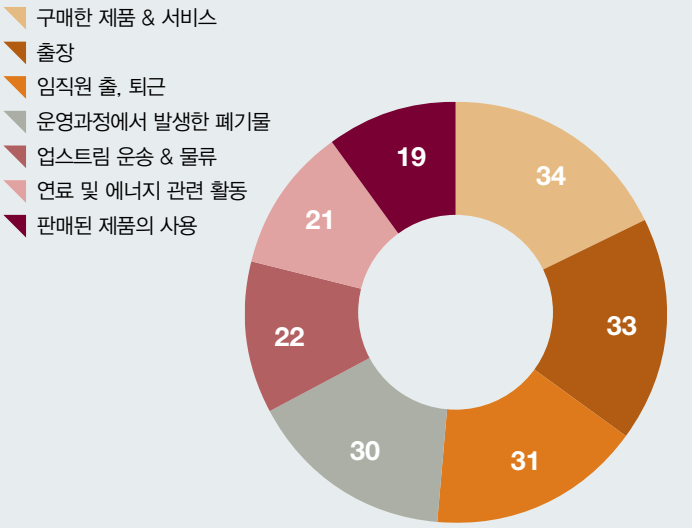
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1]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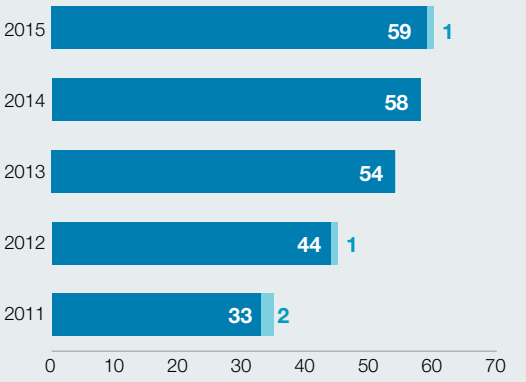
KS 10 SCOPE 3 주요 배출원[2]

배출원 수



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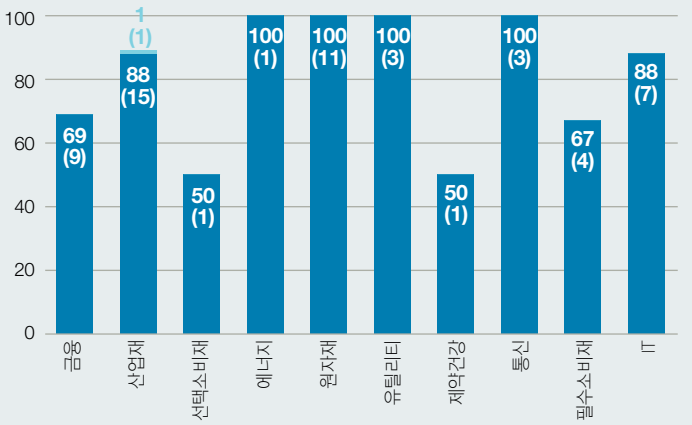
기업 수



(Note: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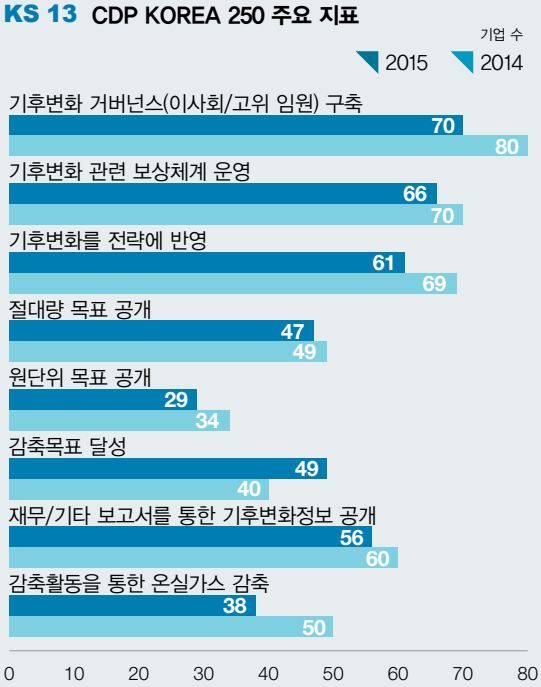
%, 기업 수



1. CDP 질의서 14.1 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만 산정
3.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기후변화 성과 주요통계

KS 13 CDP KOREA 250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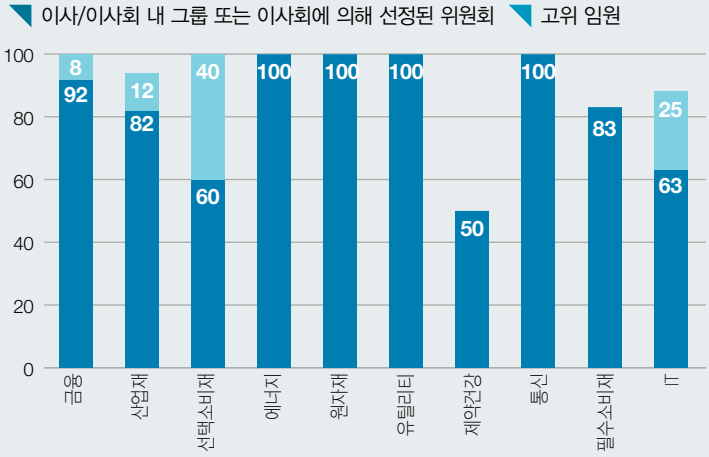


본 섹션의 온실가스감축 (절대량, 원단위)목표 관련 통계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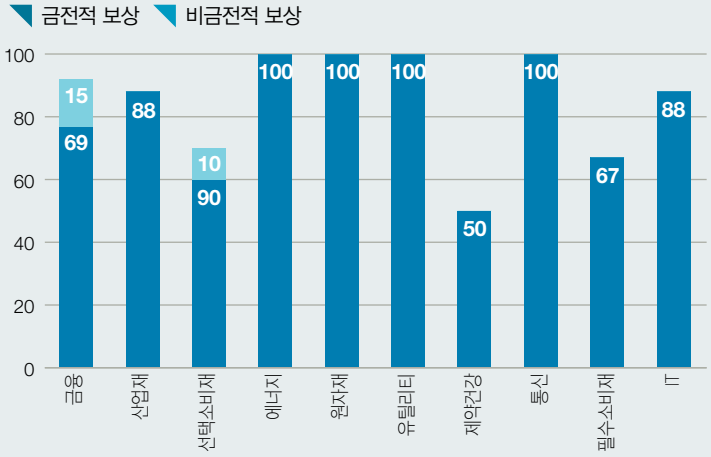
하나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인센티브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 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

KS13의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보고서의 실제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두 기업 통계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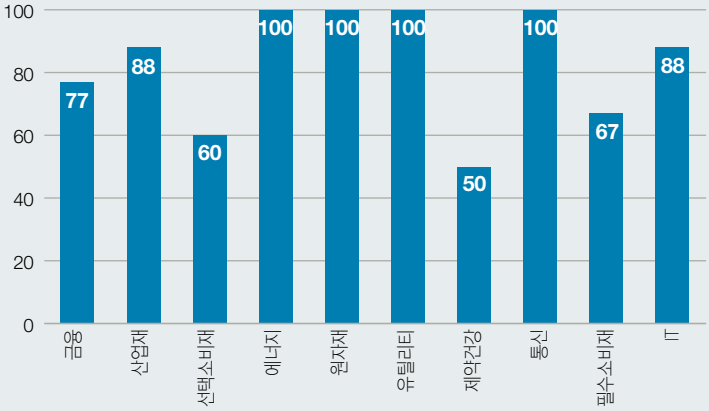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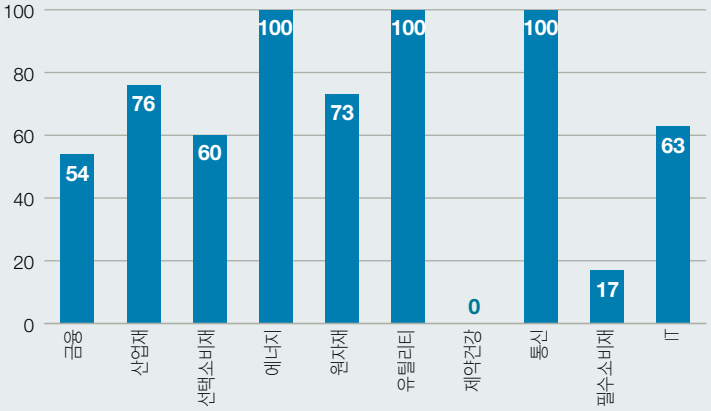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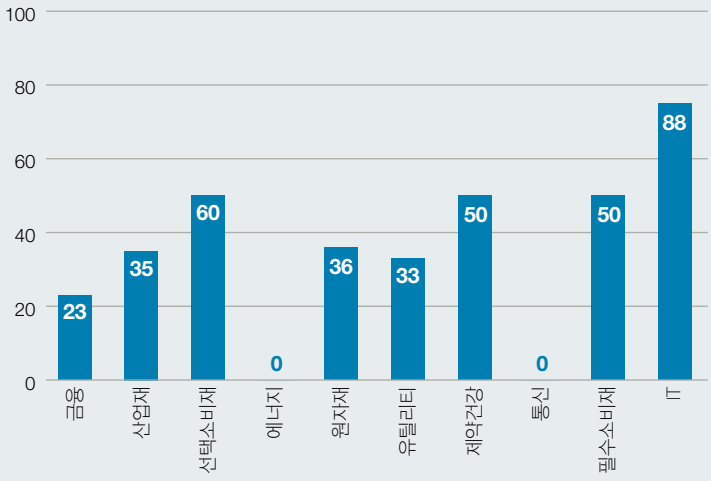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반영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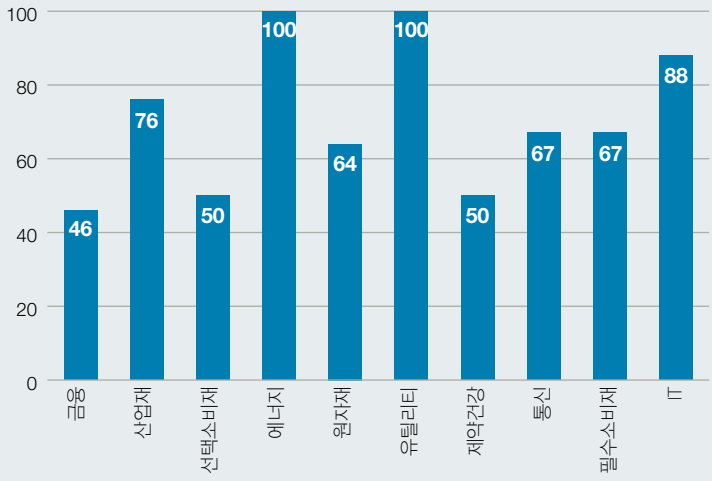
KS 17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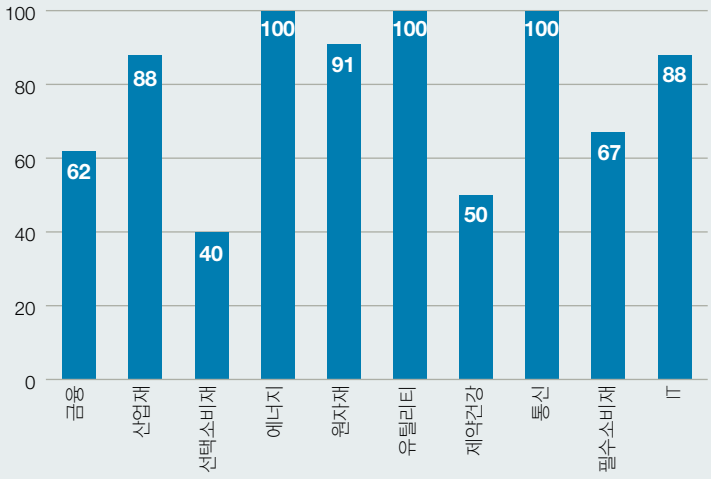
KS 18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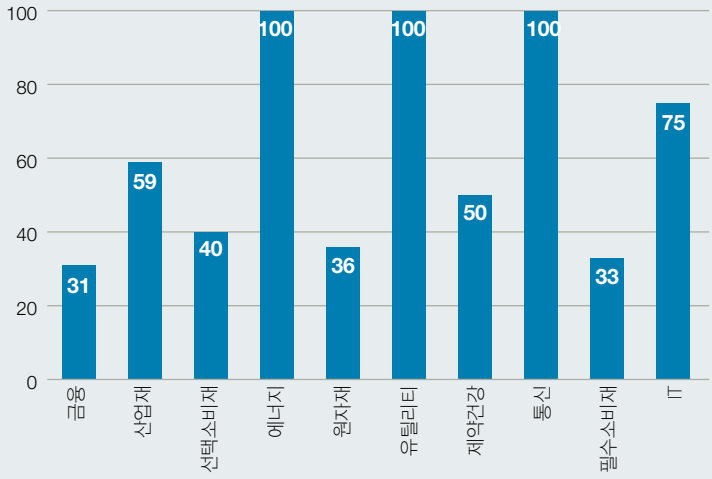
KS 19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



KS 20 섹터별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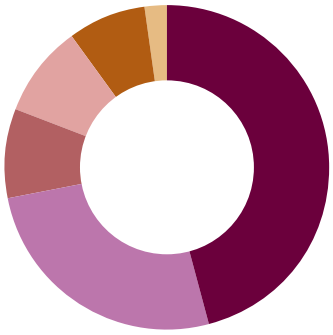
KS 21 섹터별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 비율 %



1. 재무 또는 기타 보고서 첨부 기업만 산정

부록 I
Investor signatories and members

1. CDP 서명기관 지역 분포



- 유럽 - 383 = 46%
- 북아메리카 - 220 = 26%
- 중앙 남아메리카 - 75 = 9%
- 아시아 - 78 = 9%
- 호주 뉴질랜드 - 67 = 8%
- 아프리카 - 16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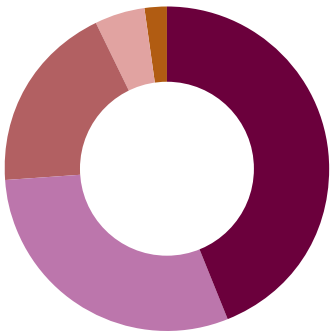
CDP 투자자 이니셔티브 – 2015년 822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운용자산: 95조 달러)이 CDP 투자자 이니셔티브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연간정보를 장기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 및 기후변화, 물, 삼림자원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기업의 환경정보에 하고 이를 장기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멤버로 참여한 금융기관은 CDP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P 투자자 멤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cdp.net/en-US/Programmes/Pages/what-is-membership.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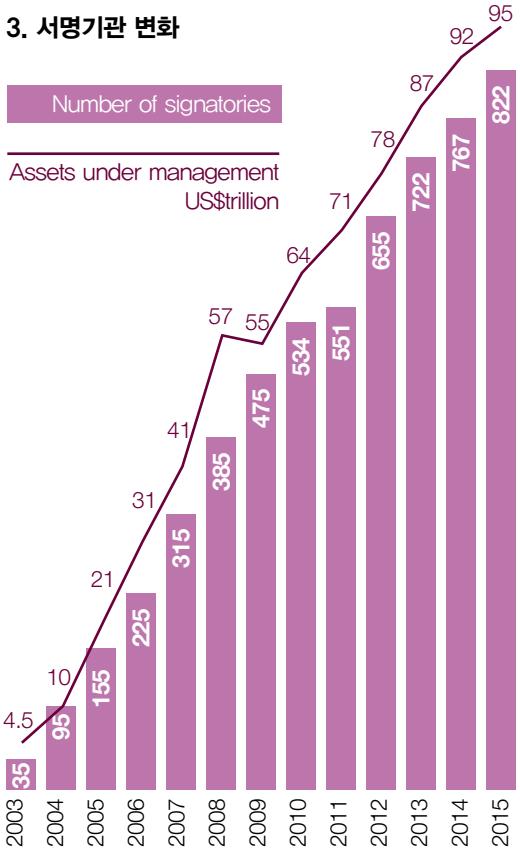
서명기관 전체 리스트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cdp.net/en-US/Programmes/Pages/Sig-Investor-List.aspx

2. 서명기관 유형



- 자산 운용사 - 364 = 44%
- 자산 소유사(Asset Owners) - 252 = 30%
- 은행 - 162 = 19%
- 보험사 - 37 = 5%
- 기타 - 19 = 2%

3. 서명기관 변화



Investor members

ABRAPP -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ntidades Fechadas de Previdência Complementar
AEGON N.V.
Allianz Global Investors
ATP Group
Aviva Investors
AXA Group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endigo & Adelaide Bank Limited
BlackRock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LLC
BP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 Inc.
Capricorn Investment Group, LLC
Catholic Super
CCLA Investment Management Ltd
ClearBridge Investments
DEXUS Property Group
Environment Agency Pension fund
Etica SGR
Eurizon Capital SGR
Fachesf
FAPES
Fundação Itaú Unibanco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Henderson Global Investors
HSBC Holdings plc
Infraprev
KeyCorp
KLP
Legg Mason Global Asset Management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
Maine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Morgan Stanley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NEI Investments
Neuberger Berman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Nordea Investment Management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Overlook Investments Limited
PFA Pension
Previ
Real Grandeza
Robeco
RobecoSAM AG
Rockefeller Asset Management, Sustainability & Impact Investing Group
Royal Bank of Canada
Sampension KP Livsforsikring A/S
Schroders
SEB AB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Inc
Sustainable Insight Capital Management
TD Asset Management
Terra Alpha Investments LLC
The Wellcome Trust
UB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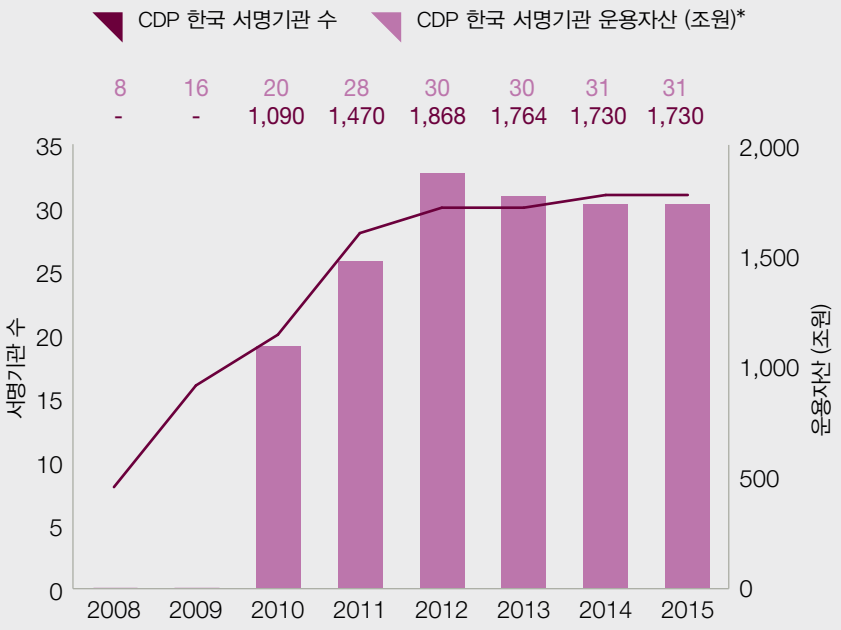
부록 II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31

2015년 2월 1일 기준, 31개의 국내 금융기관 (운용자산: 1,730조원)이 CDP 2015의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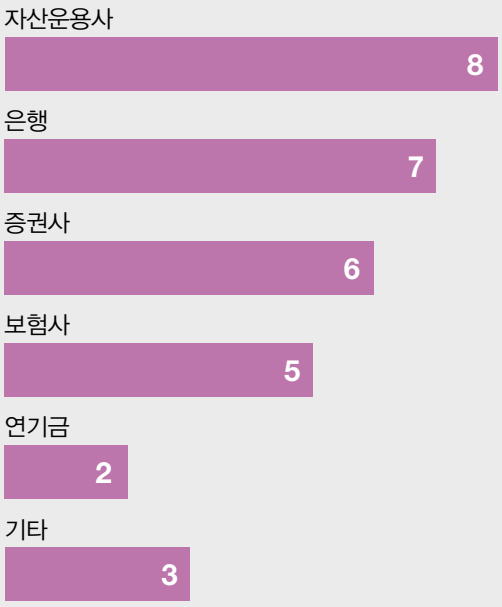
기업은행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구은행	우리은행
대성투자자문	템피스투자자문
대우증권	한국기술보증기금
동부화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해상화재
부산은행	IBK증권
사학연금	KB국민은행
삼성생명	KD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LIG손해보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삼성화재	NH-CA자산운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Q캐피탈파트너스
신한은행	

CDP Investor 서명기관 수 및 운용자산



* 달러(US) 표기 자산 환전·환율 1050원

CDP 한국 서명기관 유형



부록 III
CDP 2015 그룹별 참여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그룹명	응답 여부	기업명	성과 밴드	공개 점수
삼성	응답	삼성SDI	B	98
		삼성물산	A	99
		삼성생명	비공개	
		삼성엔지니어링	A	100
		삼성전기	A	100
		삼성전자	A	98
		삼성정밀화학	비공개	
		삼성중공업	B	91
		삼성증권	D	88
		삼성화재	B	98
		제일기획		
		호텔신라		
	무응답	삼성SDS		
		삼성카드✖		
		에스원		
		제일모직[1]		
LG	응답	(주)LG	B	97
		LG디스플레이	B	98
		LG상사	비공개	
		LG생명과학	B	99
		LG생활건강	C	97
		LG유플러스	A	100
		LG이노텍	A	100
		LG전자	A	100
		LG하우시스	비공개	
		LG화학	A–	98
SK	응답	SK브로드밴드	비공개	
		SK케미칼	C	92
		SK텔레콤	B	99
		SK 하이닉스	A–	100
		SK C&C[5]	B	81
	무응답	SK㈜✖[6]		
		SKC✖		
		SK가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응답	현대건설	A	100
		현대모비스	B	95
		현대자동차	C	79
		현대제철	A–	94
	무응답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3]		

그룹명	응답 여부	기업명	성과 밴드	공개 점수
CJ	응답	CJ제일제당	비공개	
	무응답	CJ CGV✖		
		CJ E&M✖		
		CJ대한통운✖		
		CJ오쇼핑✖		
		CJ㈜✖		
		CJ헬로비전✖		
롯데	응답	롯데케미칼	B	96
	무응답	롯데삼강✖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현대백화점	무응답	한섬✖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GS	응답	GS건설	C	88
	무응답	(주)GS✖		
		GS리테일✖		
		GS홈쇼핑✖		
금호아시아나	무응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포스코	응답	포스코	B	99
	무응답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포스코켐텍✖		
한진	응답	대한한공	비공개	
	무응답	(주)한진		
		한진칼		
		한진해운		
한화	응답	(주)한화	비공개	
		한화케미칼	B	84
	무응답	한화생명		
		한화테크윈[2]		
두산	응답	(주)두산	비공개	
		두산중공업	C	91
	무응답	두산인프라코어		
메리츠금융	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그룹명	응답 여부	기업명	성과 밴드	공개 점수
세아	무응답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신세계	무응답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		
한국전력	응답	한국전력공사	B	99
	무응답	한전KPS✖		
		한전기술✖		
현대	응답	현대상선	B	94
		현대증권	비공개	
	무응답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응답	현대중공업	비공개	
	무응답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사✖		
BNK금융그룹	응답	BNK금융지주	비공개	
	무응답	경남은행		
KT	응답	KT	A	100
	무응답	KT스카이라이프✖		
LS	응답	LS산전	C	91
	무응답	(주)LS✖		
Naver	무응답	Naver✖		
		NHN엔터테인먼트		
OCI	무응답	OCI머티리얼즈		
		OCI㈜✖		
녹십자	응답	녹십자		
	무응답	녹십자홀딩스✖		
산업은행	응답	대우건설	B	97
		대우증권	B	99
아모레퍼시픽	응답	아모레퍼시픽	B	91
		㈜아모레퍼시픽그룹	B	90
영원무역	무응답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영풍	무응답	고려아연✖		
		영풍✖		
한국타이어	응답	한국타이어	B	98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비공개	
한라	무응답	한라홀딩스		
		만도✖		

1. 삼성물산과 합병
2. SK㈜와 합병
3. 현대제철과 합병
4.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 변경

- 비공개: 획득한 공개점수와 상관없이, CDP 제출시 'Non-Public' 을 선택한 기업
- '–' : CDP 2015에 응답하였고, 'Public' 을 선택하였지만 획득 점수가 공개기준(75점) 이하인 기업

부록 IV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업 현황

섹터	기준	기업명	감축율(%)	목표연도	기준연도	기준연도 배출량	총량환산 증감율(%)*	비고
금융	절대량	동부화재	10	2015	2011	7,932		
		KB금융지주	7.93	2014	2011	130,591		
		우리은행	4.8	2014	2012	101,800		
		삼성화재	3	2014	2013	33,105		
		대우증권	2	2014	2013	15,011		
		신한금융지주	1	2014	2013	91,915		
	원단위	현대해상	20	2016	2011	0.24	▼ 3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DGB금융지주	1	2014	2013	71.11	▲ 0.96	원단위 기준: 지점
산업재	절대량	삼성중공업	10	2015	2009	452710		
		두산중공업	7.6	2020	2008	306590		
		현대건설	7.1	2018	2011	457487		
		대우건설	4	2015	2011	72457		
		KCC	1	2014	2013	1173294		
		GS건설	0.8	2014	2011	119659		
		(주)LG	40	2020	BAU	14750000	▼ 26	LG그룹 전체 감축목표로 8개 그룹사(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실트론,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포함
	원단위	현대상선	50	2020	2008	78	▼ 15.6	원단위 기준: TEU-KM, 대상 범위: Scope 1(57%)
		삼성엔지니어링	20	2020	2012	18.8	▼ 23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삼성물산	4	2014	2013	1.5	▼ 4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LS산전	2	2014	2010	0.1866	▼ 2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선택소비재	절대량	LG전자	10.3	2020	2008	1463232		대상 범위: (Scope 1+2 95%)
		넥센타이어	8	2014	2013	158253		
		제일기획	5	2014	2013	2316		
		S&T모티브	3	2015	2014	21559		
		호텔신라	3	2014	2012	24047		
	원단위	코웨이	50	2020	2010	0.357	▼ 1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현대모비스	36.67	2014	2007	1.8	▲ 61.25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현대자동차	10	2010	2020	1541424	▼ 2	
		한국타이어	5	2017	2012	0.9786	▲ 23.26	원단위 기준: 제품/톤
에너지	절대량	**S-Oil**	8	2014	2011	8182252		
원자재	절대량	SK케미칼	40	2020	2009	526754		
		한솔제지	13.9	2014	2010	957236		
		현대제철	1	2014	BAU	18990316		
	원단위	롯데케미칼	30	2018	2009	1	▼ 42.8	원단위 기준:제품/톤
		LG화학	11.1	2015	2008	0.503	▼ 11.1	원단위 기준:제품/톤, 대상 범위: Scope 1+2 (94%)
		한화케미칼	10	2014	2010	0.494	▼ 10	원단위 기준:제품/톤
		포스코	9	2020	2007-2009	2.2	▼ 9	원단위 기준: 조강/톤
유틸리티	절대량	**한국전력공사**	30.7	2014	2009	2641564		
		한국가스공사	0	2014	2013	682644		
	원단위	한국지역난방공사	5	2020	2012	56.903	▼ 2	원단위 기준: Tera Joules
제약건강	원단위	**LG생명과학**	18.14	2014	2011	11.2	▲ 25.27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통신	절대량	KT	20	2020	2007	1276872		
		SK텔레콤	15	2020	2010	576363		
		LG유플러스	1	2014	2013	1002064		
필수소비재	원단위	LG생활건강	32	2020	2009	0.1139	▲ 4.8	원단위 기준: 제품/톤
		㈜아모레퍼시픽그룹	30	2020	2010	30	▲ 310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아모레퍼시픽	8	2015	2014	1	▼ 8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IT	절대량	**LG이노텍**	4.1	2014	2013	344716		
		SK C&C	1	2020	2014	29143.05		
	원단위	삼성전자	70	2020	2008	5.17	▼ 3.2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SK 하이닉스	50	2015	2008	16.56	▼ 27.97	원단위 기준: 웨이퍼면적/m2, Scope 1 (95.22%)
		삼성전기	30	2015	2008	13.84	▲ 79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LG디스플레이	29	2020	2009	0.169	▲ 149	원단위 기준: 제품
		삼성SDI	3	2015	2014	13.52	▼ 6	원단위 기준: 매출액/억원
SSC	절대량	한국철도공사	9.7	2020	2007-2009	1654859		
		한국동서발전	8.6	2015	2013	43206079		
		심텍	3.4	2014	2009	67094		

* 원단위 목표 달성 시의 총량(절대량) 환산 변화율은 기업에서 직접 산정하여 보고한 수치로, 각 기업에서 산정 시에 적용한 가정(예: 목표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결과값이 상이할 수 있음.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강원랜드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게임빌✖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경남은행	금융	무응답													
고려아연✖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고려제강✖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응답거부							
골프존✖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금호산업	산업재	무응답													
금호석유화학	원자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금호타이어✖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기아자동차✖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기업은행	금융	응답	C 8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12,367	61,840		VAA S1, S2	
남양유업✖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내츄럴엔도텍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넥센타이어	선택소비재	응답	–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26,014	154,193		VAR S1, S2	절대량
녹십자	제약건강	응답	–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	–			
녹십자홀딩스✖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농심✖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농심홀딩스	필수소비재	무응답													
다음카카오✖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대교✖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림산업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7,852	30,407		VAA S1, S2, S3	절대량
대상✖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대상홀딩스	산업재	무응답													
대우건설	산업재	응답	B 97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1,192	52,043	6	VAA S1, S2, S3	절대량
대우인터내셔널✖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우조선해양	산업재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우증권	금융	응답	B 9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736	13,241	2	VAA S1, S2, S3	절대량
대웅제약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한유화	원자재	무응답													
대한한공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12,805,777	62,738		VAA S1, S2	절대량&원단위
도레이케미칼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동국제강✖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동부화재	금융	응답	D 82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2,884	29,367		VAA S1, S2	절대량
동서✖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동아ST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동양생명✖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원F&B	필수소비재	무응답													
동원산업✖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원시스템즈	IT	무응답													
(주)두산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25,945	48,624		VAF S1, S2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두산중공업	산업재	응답	C 91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	127,360	156,062	3	VAA S1, S2	절대량
락앤락✖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로엔엔터테인먼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롯데삼강✖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롯데쇼핑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롯데제과✖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롯데칠성✖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롯데케미칼	원자재	응답	B 96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4,396,801	1,446,315	8	VAA S1, S2	절대량&원단위
롯데하이마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리노공업	IT	무응답													
만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매일유업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맥쿼리인프라✖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디톡스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종금증권	금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화재✖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학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미래에셋증권	금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바이로메드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부광약품	제약건강	무응답													
빙그레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삼립식품	필수소비재	무응답													
삼성SDI	IT	응답	B 98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135,293	1,001,327	6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SDS	IT	무응답													
삼성물산	산업재	응답	A 99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128,061	89,518	8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생명	금융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42,827	101,282	1	VAA S1, S2, S3	절대량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219,627	25,789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전기	IT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64,481	868,518	1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전자	IT	응답	A 98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2,620,000	6,670,000	13	VAA S1, S2, S3	원단위
삼성정밀화학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93,837	551,893		VAA S1, S2	절대량
삼성중공업	산업재	응답	B 91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223,069	239,420	6	VAA S1, S2, S3	절대량
삼성증권	금융	응답	D 88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875	5,750		VAA S1, S2	
삼성카드✖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삼성화재	금융	응답	B 98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5,316	26,728	4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양사✖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삼천리✖	유틸리티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서부T&D✖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서울가스	유틸리티	무응답		무응답											
서울반도체✖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성우하이텍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방전지✖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아베스틸✖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아제강✖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아홀딩스	원자재	무응답													
셀트리온✖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신도리코✖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신세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신세계인터내셔날✖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신한금융지주	금융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17,613	85,861	10	VAA S1, S2, S3	절대량
쌍용양회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쌍용자동차✖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씨젠✖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아모레퍼시픽	필수소비재	응답	B 91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6,136	23,744		VAA S1, S2	원단위
아시아나항공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아이마켓코리아✖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아이에스동서	산업재	무응답													
에스원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영원무역✖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영원무역홀딩스✖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영풍✖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오뚜기✖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오리온	필수소비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	–			
우리은행	금융	응답	B 96								14,728	77,905		VAA S1, S2	절대량
원익IPS✖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웹젠	IT	무응답													
위메이드✖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유안타증권	금융	무응답													
유한양행✖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이마트✖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오테크닉스	IT	무응답													
인터파크홀딩스	선택소비재	무응답													
제일기획	선택소비재	응답	–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898	1,222			절대량
제일모직[1]	산업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조광피혁	선택소비재	무응답													
종근당	제약건강	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필수소비재	응답	B 90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6,136	23,744		VAA S1, S2	원단위
차바이오앤✖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컴투스✖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리안리✖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코스맥스	필수소비재	응답	–	무응답	무응답						–	–			
코오롱인더스트리✖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코웨이	선택소비재	응답	A 9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196	5,385	9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쿠쿠전자	선택소비재	무응답													
키움증권✖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태광산업✖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파라다이스✖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파트론	IT	응답	–	응답(L)	무응답						–	–			
포스코	원자재	응답	B 9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70,430,000	4,810,000	6	VAA S1, S2, S3	원단위
포스코 ICT✖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포스코켐텍✖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풍산	원자재	응답	C 9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70,134	180,888		VAA S1, S2	절대량
하나금융지주✖	금융	응답(L)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하나투어✖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응답	B 96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545,645	345,135	7	VAA S1, S2	절대량
한국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한국단자	산업재	무응답													
한국전력공사	유틸리티	응답	B 99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	1,282,031	144,329	7	VAA S1, S2, S3	절대량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응답	A–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4,197,285	106,940	9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한국콜마✖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국타이어	선택소비재	응답	B 98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247,792	933,152	7	VAA S1, S2	원단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금융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	–			
한국토지신탁	금융	무응답													
한국항공우주✖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라비스테온공조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한라홀딩스	선택소비재	무응답													
한미사이언스	제약건강	무응답													
한미약품✖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한샘✖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섬✖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세실업	선택소비재	응답(L)		응답	응답						895	16,107			원단위
한솔제지	원자재	응답	B 91	응답(L)		무응답					301,295	529,104		VAA S1, S2	절대량
한일시멘트	원자재	무응답													
한전KPS✖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한전기술✖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한진	산업재	무응답													
한진칼	산업재	무응답													
한진해운	산업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주)한화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68,169	34,544		VAA S1, S2	절대량
한화생명	금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무응답								
한화케미칼	원자재	응답	B 94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347,219	2,092,389		VAA S1, S2	원단위
한화테크윈[2]	산업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현대건설	산업재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3,232	52,924	9	VAA S1, S2 VAR S3	절대량
현대그린푸드✖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글로비스✖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현대로템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현대리바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현대모비스	선택소비재	응답	B 95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41,387	260,851	2	VAA S1, S2 VAR S3	원단위
현대미포조선✖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백화점✖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산업개발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상사✖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상선	산업재	응답	B 94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5,314,633	28,450	2	VAA S1, S2	원단위
현대엘리베이터✖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위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자동차	선택소비재	응답	C 7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839,210	1,676,625	1	VAA S1, S2	원단위
현대제철	원자재	응답	A– 94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3,328,429	5,473,867	4	VAA S1, S2, S3	절대량
현대중공업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509,562	566,882		VAA S1, S2	절대량
현대증권	금융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	–			절대량
현대하이스코✖[3]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해상	금융	응답	C 94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2,564	21,149	4		원단위
현대홈쇼핑✖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호텔신라	선택소비재	응답	–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무응답			6,633	16,816		VAR S1, S2	절대량
효성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327,216	1,000,664	2	VAA S1, S2	절대량
휠라코리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휴온스	제약건강	무응답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휴켐스*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AK홀딩스	원자재	무응답													
BGF리테일	필수소비재	무응답													
BNK금융지주	금융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CJ CGV✖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 E&M✖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대한통운✖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CJ오쇼핑✖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CJ제일제당	필수소비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137,894	149,315		VAA S1, S2	절대량
CJ㈜✖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CJ헬로비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DGB금융지주	금융	응답	B 99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3,069	15,098	8	VAA S1, S2, S3	원단위
GKL✖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GS✖	에너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GS건설	산업재	응답	C 88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45,162	74,498	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GS리테일✖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GS홈쇼핑✖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JB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무응답											
KB금융지주	금융	응답	–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15,888	104,636	1	VAR S1, S2, S3	절대량
KCC	산업재	응답	C 78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931,080	341,154		VAA S1, S2	절대량
KH바텍	IT	무응답													
KT	통신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4,073	1,044,655	12	VAA S1, S2, S3	절대량
KT&G	필수소비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KT스카이라이프✖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LF✖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주)LG	산업재	응답	B 97	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1,640,091	1,649,812	4	VAA S1, S2, S3	절대량
LG디스플레이	IT	응답	B 98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705,036	3,255,062	3	VAA S1, S2, S3	원단위
LG상사	산업재	응답	–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460	953			
LG생명과학	제약건강	응답	B 99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7,277	52,888	4	VAA S1, S2, S3	원단위
LG생활건강	필수소비재	응답	C 97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5,833	36,955	6	VAA S1, S2, S3	원단위
LG유플러스	통신	응답	A 100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5,837	979,028	6	VAA S1, S2, S3	절대량
LG이노텍	IT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26,005	300,041	10	VAA S1, S2, S3	절대량
LG전자	선택소비재	응답	A 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395,822	822,935	13	VAA S1, S2, S3	절대량
LG하우시스	산업재	응답	–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51,903	88,138	3	VAA S1, S2 VAR S3	절대량
LG화학	원자재	응답	A– 98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4,651,781	3,732,577	1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LIG손해보험	금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주)LS✖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LS산전	산업재	응답	C 91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193,763	24,598	2	VAA S1, S2	원단위
Naver✖	IT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NC소프트✖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NHN엔터테인먼트	IT	무응답		무응답											
NH농협증권[4]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NH투자증권	금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NICE홀딩스	금융	무응답													
OCI머티리얼즈	원자재	무응답													
OCI㈜✖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응답					
S&T모티브	선택소비재	응답(L)									3,045	15,948		VAR S1, S2	절대량

부록 V
CDP 2015 Korea 250 기업별 현황

ETS대상 목표관리제대상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명	섹터	응답	점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검증	감축목표
SFA✖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SK C&C5	IT	응답	B 81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452	28,691	6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SK 하이닉스	IT	응답	A-100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2,372,668	2,741,284	13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SKC✖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가스✖	에너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네트웍스✖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브로드밴드	통신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SK이노베이션✖	에너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SK케미칼	원자재	응답	C 92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434,964	85,070	1	VAA S1, S2	절대량
SK텔레콤	통신	응답	B 99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7,134	735,750	7	VAA S1, S2	절대량
SL✖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SM엔터테인먼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Oil	에너지	응답	A- 98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6,406,220	996,107	6	VAA S1, S2, S3	절대량
YG엔터테인먼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덕전자	SSC	응답(L)		응답	응답	응답					458	39,500		VAA S1 VAR S2	
심텍	SSC	응답	D 82	응답	응답	응답					6,920	83,297		VAA S1, S2	절대량
한국동서발전	SSC	응답	C 90	응답	응답	응답					38,300,812	82,635	11	VAA S1, S2	절대량
한국철도공사	SSC	응답	C 91		응답	응답					446,961	1,192,405		VAA S1, S2	절대량
한영산업	SSC	응답(L)									–				
한화그룹	SSC	응답	D 91	응답	응답	응답					4,281,735	2,496,010		VAR S1, S2	원단위

1. 삼성물산과 합병
2.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 변경
3. 현대제철과 합병
4.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과 합병
5. SK㈜와 합병

1. 응답

- **응답(L)** :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 반영

2. 점수

- 공개점수 75점 이상, CDP 제출 시, 'Public'을 선택한 기업의 공개점수 및 성과밴드 표기
- 비공개: 획득한 공개점수와 상관없이, CDP 제출시 'Non-Public'을 선택한 기업
- '–': CDP 2015에 응답하였고, 'Public'을 선택하였지만 획득 점수가 공개기준(75점) 이하인 기업
- 공란: CDP 2015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3. 검증

- **VAR**: 검증/보증 보고, '검증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작년 문서 첨부'를 선택하였으나, 실제 평가 가능한 검증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된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VAF**: 검증/보증 진행 중 (첫 해). 검증 진행 중이나 올해가 검증을 받는 첫 번째 해 이므로 검증관련 문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VAA**: 검증/보증 승인. 보고연도 검증의견서 또는 지난해 문서를 첨부하였고, 해당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S1**: Scope 1 배출량 검증
- **S2**: Scope 2 배출량 검증
- **S3**: Scope 3 배출량 검증

CDP Contacts

Sue Howells
Co-Chief Operating Officer

Daniel Turner
Head of Disclosure

James Hulse
Head of Investor Initiatives

Antigone Theodorou
Director, Global operations

CDP
3rd Floor, Quadrant House
4 Thomas More Square
Thomas More Street
London E1W 1YW
United Kingdom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info@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송호상
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연구원

김주원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rea@cdp.net

EY한영 Contacts (한국 평가파트너)

정영일
파트너

장혁수
매니저

구형남
시니어 컨설턴트

EY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hyuk-soo.jang@kr.ey.com

CDP 한국 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양춘승
실무위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영일
실무위원
EY한영 파트너

정해봉
실무위원
에코프론티어 대표